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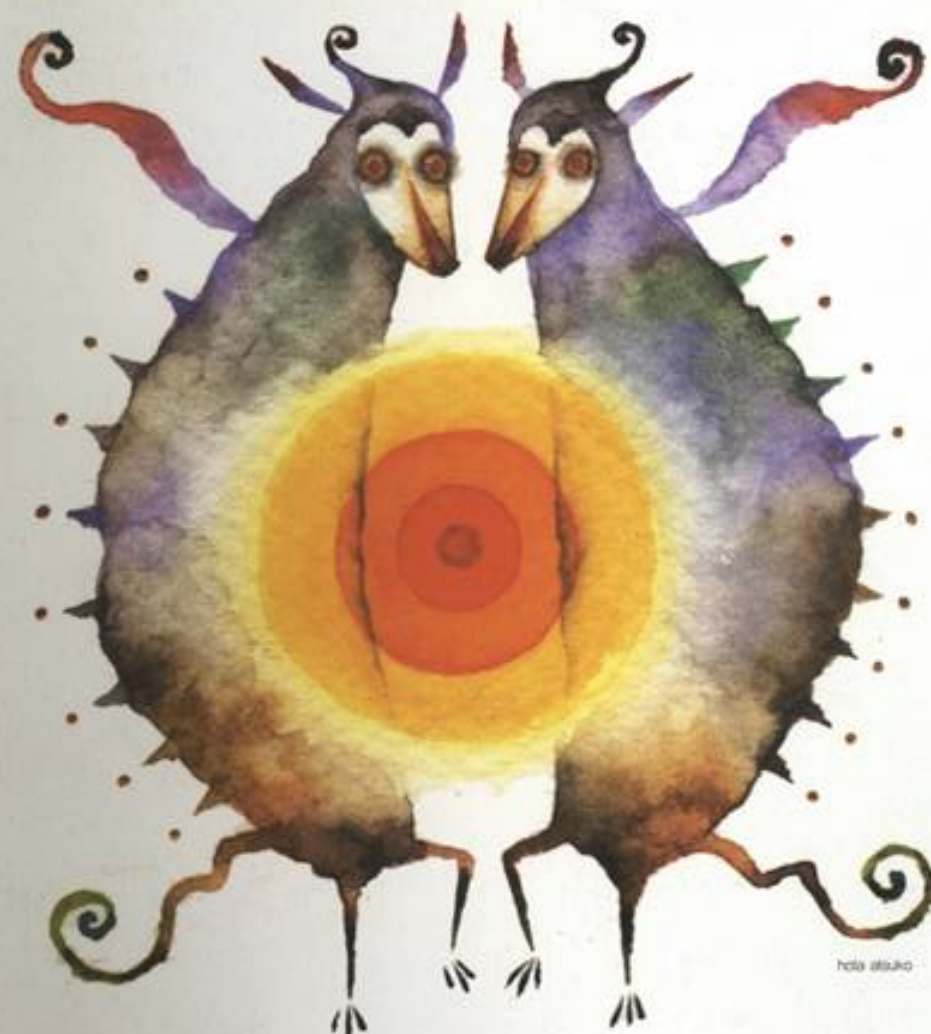
앵무조개 네트워크

2010 가을호

경계를 훌트리어 차오르는 이야기
22대 총여학생회 (speak-out)

앵무조개 네트워크

speak-out@yonsei.ac.kr
web.yonsei.ac.kr/ysfem



hola stanko

【특집】 본력 연세춘추 철학 총여학생회에 대한 연세춘추의 관찰: 비판적으로 돌아보기 / (연세춘추) 당신의 성의식론 어떤가요? [Issue Fighting!] 우리가 사는 세상 <반대성목록> 사회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는 기제들-과학적기제 / <생협> 미술실에서 에코페미니즘 생각하기 [speak-out 이야기1] 2010 여성주의 학교 여성주의 학교 원 토끼 안녕? [speak-out 이야기2] 사진으로 다시 보는 2010 제12회 여성제 <물이 없어 왔다> / 오씨의 옷장 / 폐막식 "공간 비틀기 게임러: 곁에는 안 죽는다" 디아-인(de-in) 퍼포먼스 / "없어진 몸들의 관서화" 후기 / 오씨의 앨범 / 여성제, 한달 후, 그리고...

경계를 훌트리어 차오르는 이야기
22대 총여학생회 「speak-out」

앵무조개 네트워크

C
O
N
T
E
N
T
S



[특집] 본격 <연세춘추> 침략

- 02 종여학생회에 대한 <연세춘추>의 관전 비판적으로 알아보기
- 10 <연세춘추>, 당신의 정의관은 어떤가요?

[Issue Fighting!] 우리가 사는 세상

- 14 <변호성목회> 사회가 성폭력 사건을 온배하는 기제들 - 화학적 거세
- 18 <생협> 미술품에서 에코페미니즘 생각하기

[Speak-out 이야기 1] <2010 여성주의 학교>

- 21 여성주의 학교: 온 토끼 만경?

[Speak-out 이야기 2] 2010 제12회 여성제 <몸이 없어졌다>

- 24 사진으로 다시 보는 제12회 여성제 <몸이 없어졌다>
- 28 오빠의 옷장
- 30 배악식 '공간 비틀기 게임' : 급제는 안 죽는다! 다이-앤드-히 퍼포먼스
- 34 '없어진 몸들의 콘서트' 후기
- 36 오빠의 앨범
- 42 여성제: 한달 후, 그리고...

44 <Speak-out> 활동 보고

- 46 종여학생회 특별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 47 에피타피리 책 읽고 사명을 보내주세요

48 후기

특
집

총여학생회에 대한 《연세춘추》의 관점, 비판적으로 돌아보기



suhyun_2000@naver.com

2010년 10월 11일자 춘추에 <사설: 총여학생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가 실린 이후 학생개인 과 학내단위에서 작성한 자료가 증도 있을 때였다. 자료의 내용은 해당 기사를 비판적으로 읽어내며 춘추에게 학내언론으로서의 위치를 성찰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누군가는 이를 '춘추사태'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태는 예기치 못한 일이었다기보다 그간 춘추를 구독하며 우려했던 바가 현실화 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독자로서 경험한 춘추는 다음과 같았다. 사전에 행사사진촬영을 하지 말 것을 약속받았으나 신문 1면에 대대적으로 참여자의 얼굴이 드러난 사진이 실린다거나, 인터뷰 내용의 전후 맥락이 누락된 채로 "이성애자 비장애인 남성"을 "이성적이고 건강한 남성"으로 오기 한다던가, 최소한의 신뢰도조차 확보되지 않는 지나치게 주관적인 설문조사를 전체메일로 배포한다던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용어를 헤드라인으로 뽑는다던가 하는. "정론직필 연세춘추"라는 이름 아래에서 기대되는 바와는 달리 실망만을 안겨주는 일이 비일비재 했던 것이다.

춘추에서는 보통 설문조사, 인터뷰 등의 방식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기사를 작성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는 춘추의 무관점은 결과적으로 하나의 관점으로서 기사에 반영된다. 왜냐하면 어떤 목적 하에 어떤 문항으로 설문조사를 구성할 것인가, 어떤 인터뷰이를 택하여 어떤 내용을 취사선택하여 기사에 실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서 춘추의 관점이 없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총여학생회를 보도하는 와중에 "생결 오남용 사례 BEST5"와 "총여에게 바란다 BEST5"가 게재되었다. 여기에서는 BEST5라는 네이밍을 통해 의도적으로 어떤 통계적인 순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일으키면서도 어떠한 수치적인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를 보아 추측하건대 일차적으로 설문 문항 상에서 의도된 바에 따른 대답을 이차적으로 춘추에서 구미에 맞게 선별한 것이 아닐까 싶었다. 이것은 춘추가 하고 싶은 말을 '학생들'의 뒤에 숨어서 '학생들'의 입을 빌려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기사작성과 기사의 관점을 담지 하는 주체를 '춘추'라고 호명하기로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총여학생회에서는 공문 등을 통하여 춘추에 문제제기 해 왔다. 그러나 2010학년도 2학기 들어 총여학생회에 관련하여 보도되었던 다음의 세 기사의 경우 좀 더 날카로운 비판과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여겨져 매체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연세춘추에서는 2010년도 9월 6일자 1642호 <보도기획:총여학생회>, 10월 4일자 1645호 <공부하던 학생들에게 가해진 또 하나의 폭력, 여성제>, 10월 11일자 1646호 <사설:총여학생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까지 세 차례에 걸쳐 총여학생회에 관련된 기사를 실었다. 이 글에서는 이 세 기사를 관통하여, 학생회라는 구조 속에서 여성주의 총여학생회가 존재하는 이유에 관한 춘추의 관점을 지금의 학교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비판하고자 한다.

01.

총여학생에 대한 《연세춘추》의 관점, 비판적으로 돌아보기

《보도기획》에서 “학내 여학생 복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총여의 역할과 목표를 알아보는” 라고 밝혔듯이, 춘추에서 총여학생회를 바라보는 관점의 핵심 키워드는 ‘여학생 복지’이다. 그렇다면 《보도기획》이 어떤 논리적인 일관성과 흐름을 갖추기 위해서 ‘여학생 복지’라는 단어를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단어는 마치 마법의 열쇠나 다름이 없는 것처럼 기사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춘추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단어는 학생회의 목적과 역할 및 지향을 통째로 정의내릴 수 있는 용어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기사 어디에서도 ‘여학생 복지’에 대한 춘추의 비판적 정의를 찾아볼 수 없었고 그러다보니 설득력 없이 공허하게 메아리치는 단어로만 남았다. 결과적으로 《보도기획》은 현재의 여성주의 총여학생회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점을 놓쳤고 학내에 의미 있는 담론을 형성해내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학교 안에서 학생들에게 ‘복지’라는 단어는 좁은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셔틀버스를 증설하거나, 학생 멤버십 카드를 발급하거나, ATM 기기를 증설하는 일, 학생식당을 리모델링하는 식으로 학생들에게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물질적이고 제도적인 혜택을 일컫는다. 이러한 용법을 고려하면서 ‘여학생 복지’라는 단어를 비판적으로 읽어내고, 이 범주 내에서 총여학생회의 활동을 다루는 것이 과연 유의미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총여학생회의 활동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비가시화 되고 부차화 된 여학생들의 경험을 드러내고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활동이 여학생이라는 ‘수혜자’에게 주어지는 추가적인 ‘혜택’으로 여겨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예를 들어 《보도기획》에서는 여학생휴게실과 생리결석제를 총여학생회의 대표적인 활동으로 제시한다. 위의 두 사안은 여학생들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혜택’이 아니라 ‘일상’이다. 학교에서 학생으로 살아 가다보면 강의실뿐만 아니라 휴식하고 공부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필수적이다. 이 때 가장장적인 학내

문화 속에서 남성연대가 점령한 과방, 동방에서 벗어나 여학생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여휴는 필요하고 또 유효하다. 마찬가지로 여학생들이 생리결석제를 필요로 하는 까닭은 단순히 쉴 수 있는 날이 더 늘어나기 때문이 아니다. 지금껏 없는 것으로 치부되었던 월경의 경험을 학사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로서 기능해 왔기 때문에 의미있는 것이다.

《보도기획》에서 언급된 위의 두 사안만 하더라도 춘추에서는 “실질적인 복지”라는 차원에서 접근한다. 그러나 혜택의 의미의 ‘여학생 복지’가 아닌 권리의 의미인 ‘여학생 교육권’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때에 비로소 위와 같은 총여학생회의 활동은 온전히 정당성을 얻는다. 그 까닭은 먼저 ‘학생’이라는 단어로 포괄할 수 없는 ‘여학생’의 소수자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동시에 ‘학생’이라는 단어가 여성, 비이성애자, 장애인 등의 다른 주체들을 삭제해버릴 수 있는 특정한 전제와 권력관계를 내포한 단어라는 사실을 폭로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처럼 총여라는 기구가 학생회 체계 내에 존재하고 또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학생회 체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구조적인 모순 속에서 총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점을 간과한 채로 복지라는 단어를 오남용하는 것으로는 여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다. 오히려 수혜자로서 특수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대체해 버림으로서 여학생들의 삶을 더욱 변두리로 밀어낸다.



이렇게 여학생들의 삶을 주변화하는 ‘여학생 복지’라는 단어의 오남용 사례는 멀리 갈 것도 없이 이미 《보도기획》에서 잘 찾아볼 수 있다. “생리결석제의 오남용”을 이슈화하는 것은 생리결석제를 여학생들만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혜택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성립하는 기사이다. 또한 여학생 휴게실의 관리를 총여가 총괄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것은 학생회뿐만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 여학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유지해야 할 책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기사에서 춘추는, 성폭력이 횡행하는 학내에서 반성폭력 학칙 및 내규를 제정하고 담론화 하는 일, 세미나와 매체, 문화제 등을 통하여 학내의 가부장적인 인식을 바꾸어 나가는 일, 자치단체특별지원금을 통해 학내 여학생 소모임을 지지하는 일 등을 애초에 총여의 활동으로 고려하지조차 않았다. 이는 총여 활동의 주요한 한 축이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반성폭력 운동이었음을 상기할 때 총여학생회의 활동을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보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조차도 애초의 취지와 다르게 왜곡해버렸기 때문에 문제적이다.

결국 이것이 춘추에서 말하는 ‘여학생 복지’하는 총여학생회의 허술하기 짝이 없는 실체이다. 참 초라하게도 춘추의 성인지적 관점에 기반 하여 상상할 수 있고, 가능하다고 여기는 총여학생회의 활동은 겨우 이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여학생 복지’라는 키워드로 총여학생회의 활동과 여학생들의 삶에 접근할 때 부딪치게 되는 한계는 이미 《보도기획》 안에 여실히 드러나 있다.

02.



지금의 총여학생회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학교라는 공간에 대한 파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보도기획>과 <사설> 두 가지 기사에서는 학내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평등 해 졌다는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주장하는데 사용되는 지표들은 하나같이 불충분해서 의미 있는 공간 분석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설>의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비율이 늘어나고 총학생회장이 여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가 더 이상 가부장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것은 단지 권력적 다수/소수의 개념과 수치 다수/소수의 개념을 오인한 기사 작성 과정에서의 오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사실상 <보도기획>과 <사설>에서는 이렇게 할 공간에 대한 분석이나 인식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것은 일련의 춘추기사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비판해야 할 또 다른 지점이다.

총여학생회의 활동은 학교가 누구를 중심으로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를 돌아보는데서 출발한다. 위에서 설명되었듯이 학교가 그리고 학생회가 '학생'으로 간주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폭로하고, 그것이 어떻게 다른 주체들을 주변화하고 소수자화 하는가를 이야기 하는데 총여학생회의 존재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춘추는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춘추가 파악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문화, 공동체, 관계맺음 등의 측면을 중심으로 치밀하게 밝혔어야 한다. 이를 밝히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의 학교라는 공간이 당연하고 보편적일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적으로 어떤 주제를 이슈화하고 담론을 형성할 때 성/별정체성, 장애, 계급과 같은 경계들에 얽힌 권력 관계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그 사회가 이미 평등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회가 사회를 유지하는 정상성과 기득권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에 불과하다. 학교라는 공간 역시 사회와 무관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현실이기 때문에, 언론으로서 춘추의 분석의 태만함은 기존 사회의 권력구조와 편견을 재생산하는데 일조한다. 일단 춘추에서 발행한 기사들에서 단편적으로 드러나는 춘추의 공간에 대한 인식과 춘추가 상정하고 있는 독자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예를 들어 9월 13일에 춘추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체메일을 통하여 "10월 11자 연세춘추 문화백선 (sex and the university : 연세인들의 성)"이라는 기사의 명목으로 "연세인들의 성의식 및 성생활(?)에 대한 설문조사"를 발송했으며 이를 토대로 해당 기사를 작성했다. 이 설문조사와 기사에서 춘추가 상정하고 있는 연세인은 '이성애자 비장애인 남성'이다.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페이지의 <연세춘추 당신의

성의식은 어떤가요>를 참조하라.) 거기에 더해 같은 호 춘추에 실렸던 <사설>에서는 "이성애는 만물의 근원을 이루어왔다"라고 선언한다. 그렇다. 춘추는 이성애자 비장애인 남성이 아닌 다른 정체성을 가진 독자들, 여성이나 비이성애자와 같이 이 설문과 기사를 읽고 성폭력적이고 호모포비아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독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러한 배제와 삭제 가능한 것이야말로 학내가 가부장적이고 성폭력적이며 이성애중심주의적이라는 하나의 명백한 근거이다. 그런데도 <보도기획>에서는 탈이성애중심주의의 공약에 대하여 "동성애라는 성의 광범위한 문제까지 포괄해 너무 넓게 접근하고 있다"고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만 앉았으니 어쩌라.

학교가 성평등하다는 것은 여학생과 남학생이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고 학점 경쟁을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평등은 단순히 여학생과 남학생의 수치적 비율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성주의적으로 재구성해 나가는 '권리'와 '평등'의 개념은 단순히 남성, 이성애자, 비장애인과 같은 다수자가 누리고 있는 특권을 절대적 기준으로 하여 소수자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를 넓혀나가는 수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업, 과/반공동체, 동아리, 사람들과의 관계맺음, 신촌 어느 술집에서의 술자리 등지에서 그/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총체적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평등에 대해서 사고하고 이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여학생, 비이성애자, 장애인과 같은 이들의 소수자성을 만들어내는 기제는 각기 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맞물려 있다. 여성주의 총여학생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학교라는 공간을 파악하고 문제제기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구이다. 이 기구를 향하여 학내가 왜 가부장적이고 이성애중심적이고 비장애중심적이라고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위치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거나 그 불편함을 일상적으로 성찰하고 고려할 필요조차 못 느끼는 사람일 것이다. 무엇이 권력이라고 묻는다면 "왜 불편하지 모르겠어" "그건 내 얘기가 아니야" "나는 잘 모르겠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권력이라고 대답하겠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주체들은 권력을 덜 가진 이들이 다. 특권임을 모를 수 있는 특권이야말로 권력의 부수적인 효과인 것이다.

수업시간에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환원하고 동성애자를 회화화하는 언어성폭력, 호모포비아의 일어난 때 학생들은 재미있는 농담이라고 웃어넘기지만 누군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그것을 폭력이라고 느낀다. 공동체 내에서 연애하다가 깨졌을 때 남학생은 아무렇지 않게 그 공간에 계속 드나들 수 있지만 여학생은 공간에 얼굴을 비치기도 어려워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군대에 다녀오고 나서 복학한 남학생은 다시 공동체의 주류로 편입할 수 있지만 비슷한 경우 여학생은 점점 입지가 좁아지고 발언권을 잃는 경우가 많다.

학교라는 공간을 파악하는 양상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학교는 다양한 경계들이 만나고 충돌하는 장이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총여학생회는 '여학생'이라는 성/별정체성의 소수자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학생회로서 생겨난 기구이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공간을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활동을 한다. 이는 수적으로 다수인 여학생들이 익숙하게 살아가는 방식을 반영하여 공간을 파악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여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다른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유롭게 풀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간다는 의미이다. 학생들이 학생 때 맞닥뜨리게 되는 중요한 경험이나 고민들을 함께 이야기해나갈 수 있는 것 역시 학생회가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이다. 여성주의 총여학생회에서 가부장적이고 이성애중심적이며 비장애중심적이라는 키워드로 학교라는 공간을 진단해내고 학생들과 함께 풀어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03.



위에서 짚어보았듯이 '여학생 교육권'이라는 측면에서도, 학교라는 공간을 성인자적인 관점에서 파악한다는 측면에서도 춘추가 제시하는 총여학생회에 대한 평가는 부정확하며 부적절하다. 이러한 부족한 기사를 내보내면서 결국 춘추에서 하고 싶은 말은 총여에서 여성주의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보도기획>과 <사설>에서 "지나치게 이념적"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춘추의 고정적인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념"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이고 있다는 것은 짐작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내리고 있는지가 모호하다. "이념"이라는 단어와 함께 <여성제> 기사의 경우에는 "폭력"이라는 단어가 쓰인다. "폭력"은 누가 어떤 상황을 폭력적이라고 느끼는가, 무엇을 폭력이라고 규정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과 떨어져 쓰일 수 없는 용어이다. 학생들이 중앙도서관에서 조용하게 공부하는 것이 우선인가, 매일같이 학교에서 노동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는 학내 미화직 여성 노동자의 신명나는 풍물패 몸짓을 중도민주광장에서 공연하는 것이 우선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예의범절이나 배려가 아닌 가치판단의 문제이다. 마찬가지로 소음 없이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우선인가, 여학생, 비이성애자, 장애인 등을 배제하는 학내 공간 구성에 문제제기할 수 있는 판을 벌이는 것이 우선인가 역시 가치판단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념"이나 "폭력"과 같은 단어를 쓰기 이전에 춘추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누구의 입장에서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는지를 서술했어야만 한다. 이것이 춘추 기사에서 비판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세 번째 지점이다.

여성을 대상화하거나 성애화 하지 않고, 여학생이 주체적으로 자기 의견을 개진하거나 반영할 수 있고, 이성애자임이 당연하지 않은 성/별정체성에 대하여 열린 공간, 특권과 소수자성에 대하여 섬세하게 성찰해나가는 대안적인 문화이자 공간을 꾸려나가는 것. 이를 총여학생회 활동의 중추로 바라볼 때 학생회라는 기구의 가능성을 좀 더 넓혀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총여학생회에서 여성주의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이것이다. '여성'이라는 범주는 단순히 주민등록번호 2번을 할당받은 이들을 호명하는 생물학적인 범주가 아니다. 사회적 문화적으로 여성다움을 구성해내고 여성의 역할을 규정하는 촘촘하고 공고한 가부장제 이성애주의라는 기제 속에서, 여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저항하고 타협하고 기뻐하고 우울해하며 살아가고 있는지가 얽히고설킨 범주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학생' 유권자의 표로 당선되어 총 '여학생'회라는 이름을 걸고 활동하는 단위에서 여성주의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회 기구들과 다른 고유성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더 나아가 다른 학생회 기구에서

도 상시적이고 일상적으로 학내의 다양한 주체들의 삶을 여성주의적으로 고민함으로써 함께 학교를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훨씬 더 의미 있는 작업을 펼쳐나가는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기획>에서는 이런 측면에서 올 한해 22대 총여학생회에서 어떤 공약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부족하다. 대신에 총여를 둘러싸고 되풀이되어왔던 근거가 부족한 논쟁들을 답습하는 것에 그쳤다. 총여의 공약과 활동을 제시하고 심도 있게 파헤쳐서라면 좀 더 의미 있고 생산적인 논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을 것이다. 해당 기사는 "여성주의 담론이 경쟁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일단 여기에서는 어느 한쪽이 한쪽을 눌러 이긴다는 '경쟁'이 아니라 서로 듣고 말한다는 의미를 함축한 '경합'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하다. 이점은 차치하고라도 해당 기사 내에서 여성주의에 관하여 서술된 부분은 "여성만의 목소리가 충분히 수렴되지 못했다."와 "총여의 활동이 여성만을 주장한다는 인식이 강하다"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두 문장은 상호보완적이지도 상관관계도 없는 완전히 알뉘가 맞지 않는 서술이다. 총여의 활동을 알아보기도 전에 비판해야겠다는 마음만 너무 앞선 느낌이다. 학내에서 여학생들의 삶과 여성주의에 대하여 당장 학보사인 춘추만 해도 고민도 없고 언어도 없는 것이다. 여학생들의 목소리를 담아 연세춘추는 어떤 기사를 싣고 있는가? 기사를 기획하고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입장을 고려하는가? 이러한 무책임을 총여학생회라는 기구에 떠넘긴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04.



이러한 이야기들이 낯설고, 익숙하지 않고, 불편하다는 것은 춘추 자신이 그만큼 가부장적인 학내 문화에 철저히 길들여져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성주의적으로 여학생들의 삶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불편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이야기들은 이 세상에 넘쳐나지만 그 이야기들로 변화하는 것은 없다. 누군가에게는 불편함 그 자체가 현실이고 일상이다. 이것을 드러내는 활동이 지금껏 학내를 바꾸어온 힘이었음을 한번쯤 상기할 때에야 춘추는 좋은 기사를 쓸 수 있을 것이다. 춘추가 교지라는 이름으로 써내야 하고 써내는 것이 자신들이 느끼는 불편함에 한번 몸을 맡기고 치열하게 고민한 흔적이기를 바란다.



※ 이 글은 <연세춘추> 1646호(2010년 10월 11일 자) 문화색선과 함께 읽으면 더욱 재미있습니다. ><

《연세춘추》, 당신의 성의식은 어떤가요?

9월 중순경, 모든 연세대 학부 재학생들은 <연세춘추>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설문조사에 응해 달라는 메일이었다. 연세인의 "성의식 및 성생활(?)"에 대해 알고 싶다고 했다. 기사를 보기 전부터, 아니, 설문조사 문항들을 보기 전부터 내게도 호기심이 생겼다. '오오~ 성의식! 궁금한데? 무엇이 궁금했나? 연세인의 성의식이? 아니다. 난 <연세춘추>의 성의식이 궁금했다. 설문조사를 기획하고 메일을 보낸 사람들은 이번 특집 기사를 통해 연세대 학생들의 성의식을 '엿볼' 수 있기를 기대했겠지만, 미안하게도 우리는 그 기대가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만 명이 훨씬 넘는 재학생들에게 일괄적으로 메일을 보낸 결과, 1300명이 조금 안 되는 사람들이 설문조사에 응했다. 휴학생들이 포함되지 않는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재학생 전수조사를 하려 했으나 응답률이 10% 전후 밖에 되지 않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표본 추출 과정의 특성상 통계적으로 의미가 거의 없는 설문조사임을 알기에, 그것을 기반으로 전체 연세인의 성의식을 알아내겠다는 욕심은 일찌감치 버렸다. 그리고 난 모호한 표현들로 가득 찬 설문조사 문항을 읽으면서 내 그러한 결심을 다시 한 번 되새겼다. 그렇다고 해서 춘추의 이번 기사가 내게 전혀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춘추의 이번호 문화색선은 내가 굉장히 직접적으로 그들의 성의식에 대해 알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해당 기자들의 원래 기획의도와 굉장히 다른 효과이다. 그들은 연세인의 성의식에 대해 논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성의식만 열심히 홍보하고 말았다. 춘추 씨, 연세인의 성의식이 궁금하다급소? 까아~ <궁금해, 궁금해~ 나도 궁금해!> <뭐가? 당신의 성의식이! <연세춘추>, 당신의 성의식은 어떤가요?

기사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성경험"이라는 표현과 춘추가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었다. 춘추는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에게 성경험의 유무 여부를 물었고, 기사에서 연세인 2명 중 1명이 성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고 보도했다. (춘추에서 실시하는 이러한 이메일 설문조사가 통계적으로 결코 '연세인'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는 것은 굳이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그 "성경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되어있지 않다. 우리는 다만 눈치껏 여기서 성경험이란 성기결합섹스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채야만 했다. '성경험'이라는 표현을 성기결합섹스 중심으로 사용함으로써 조사자는 그 특정한 성관계 형태를 제외한 다른 성경험들을 사소화하고 주변화한다. '성적인 경험에는 이러저러한 것들이 있지만, 뭐니 뭐니 해도 역시 핵심은 성기결합섹스를 했느냐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다.

사고방식은 연인 간의 스킨십을 소위 "진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에도 이어져 있다. 연애 관계에 있어 스킨십의 허용 범위를 묻는 문항은 이를 여실히 드러낸다. 여기서 '범위'라는 말은, 해당기사 기획자가 연인 간 몸을 대개로 이뤄지는 경험을 피라미드 구조로 정리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손-포옹과 뽀뽀-키스-애무-성관계" 순서로 이어지는 "스킨십 진도"의 서식을 별 의심 없이 대학생 성의식 조사 문항에 이용하는 이 같은 행태는 성기 중심적인 성의식을 기반으로 한 이성연애 각본을 착실히 재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성관계 "까지" 하는 연인들은 키스 "만" 하는 연인들보다 육체적으로 더 깊은 관계라고 단 순히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설사 그것이 육체적으로 더 깊은 관계라고 하더라도, 과연 몸의 행위 중심적 진도를 우리는 정서적 관계에서의 애정도 전반으로 확장시켜 해석해도 되는 걸까? 소위 진도 중심의 연애 각본의 문제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러한 성의식 체계에서는, 사람들이 "높은" 레벨의 스킨십을 한 번

① 이 물음표가 섞인 표현은 <연세춘추>가 보낸 설문조사 메일에 있는 설문조사 실시 의도 설명 글에 그대로 나온 표현이다.

② 애무와 성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걸까?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성관계"라는 용어가 성기결합섹스를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상 했을 경우 그보다 낮은 레벨로 간주되는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상대의 의사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더 “낮은” 레벨의 스킨십에 대해서는 이미 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성기결합섹스 중심적인 성의식이 팽배한 사회에서는 ‘이미 “갈 때(성기결합섹스)까지 갔으니”’ 이 전 단계 정도는 뭐 별거 아니야’ 라는 사고방식 하에 벌어지는 데이 트 성폭력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적인 각본을 전제로 깔고 구성된 설문 조사와 기사는 결국 연세인의 성의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조사자와 기자 자신의 성의식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Sex and the University>에서 드러난 춘추의 성의식에서 또 다른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것은 바로 이성애중심주의이다.⑥ 예를 들어, 설문조사 중에는 학교에서 이뤄지는 공식적인 성교육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들에게 어떤 면에서 부족했다고 느꼈는지 추가로 묻는 질문⑦이 있었다. 그 보기 중 하나가 ‘이성에 대한 이해’였는데, 이는 성교육의 주된 목표 중 하나가 ‘이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는 <연세춘추>의 성의식을 잘 보여준다. 특히 “연세인들은 이성친구가 과거 성경험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높은 관용도를 보였다”⑧고 기사 본문에서 보도한다. 이 보도와 관련된 설문조사 문항에서 이미 “이성 친구가 이전 성경험이 있는 것에 대한 수용정도”에 대해 질문했기 때문에⑨, 당연히 기사에도 그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었을 테다. 이렇게 “연애 관련” 파트에서는 잠재적인 설문응답자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성애자로 설정한 이성애중심적 성의식은 결국 성의식 설문조사 맨 마지막에 동성애 파트를 따로 마련 하는 사태까지 불렀다. 마치 ‘일반적인 성/연애/사랑’ 으로부터 ‘동성애’ 를 일종의 열외로 따로 구분 짓는 것처럼 말이다. 설문조사와 기사에서 ‘일반적인 성/연애/사랑’ 으로부터 간주된 것은 사실 전혀 일반적이지 않았다. 특정한 형태의 섹슈얼리티 각본에 따라 살고 있으며 다른 섹슈얼리티에 대해서는 거의 상상해보지 않은 사람들만이 그나마 덜 불편하게 설문에 답하거나 기사를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심지어 이 “동성애” 파트에서조차도 조사자는 기본적으로 설문응답자들을 이성애자로 상정하고 있었다. “나도 동성애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문장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라고 한 문항과 “동성애 접촉 빈도와 접촉 매개”를 묻는 문항 등에서 동성애를 철저한 대상으로 보고 있는 춘추의 성의식이 드러난다. 동성애는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어떤 응답자는 현재 느끼고/하고 있을 “사랑”이기도 하고, 또 단순히 사랑을 하고 있다는 실천적 행위의 차원을 넘어서 자기정체성과 존재의 문제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그것은 자기 삶을 어떻게 살 것이며 사회를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가 걸린 구조적 이슈이기도 하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연세대 재학생은 모두 이성애자뿐인 것일까? 그것도 51번 문항에서 여과 없이 드러난 호모포비아적 표현에도 절대 상처나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심장을 가진 사람들만? 문제의 설문조사 51번 문항에서는 자신의 친구가 동성애자라고 말했을 때 보일 반응에 대해 물으면서 가장 부정적인 반응(1점)의 예시로 “연을 끊을 정도로 싫다”를 들고 있다. (이성에 관계를 떠올리며 썼을) 동성애 파트에도 비슷한 구조의 질문이 있다. 동일한 설문조사 40번 문항은 자신의 주변 사람이 동거를 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는가 물으면서, 리커트 척도를 이용한 다른 여러 문항에서처럼 가장 부정적인 반응(1점)의 예시로 “절대 안 됨”을 들었다. 유독 동성애자 친구의 커밍아웃에 대해서만 강한 (호모포비아적) 감정이 입이 가능했던 걸까?

결과적으로는 신문기사에 실리지도 않았는데 왜 조사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이 동성애 파트에 할당된 설문조사 문항들은 매우 일관적으로 조사자의 이성애중심적 성의식과 호모포비아를 광고하고 있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동성애에 대한 수용 수준”을 물었다.⑩ 학창시절에 동성애를 “접한 적이냐 해본 적이 있냐”고도 물었다.⑪ 무슨 “체험, 동성애의 현장”도 아니고……. 해봤냐고 묻는 건 또 뭐냐? 그리고 ‘소위 동성애

코드를 이용한 드라마를 접해 본 적이 있다’도 아니고, “동성애를 접한다”는 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알 길이 없었다. 설문조사 문항들을 읽으며 난 진심으로 헛갈렸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아... 그것은 진실로 수능 언어영역 문제보다 더 어려운 설문지였다. 학창시절 동성애를 “접한 적이냐 해본 적이 있느냐” 지, 있다면 그곳은 남녀공학이었던지 아니었는지⑫, 그리고 그 동성애가 (학교에서) 공개적이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까지……. 읽으면서 숨이 차고,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졌다. 하아, 관계의 다양성을 간과해도 너무 간과한 것 같다. 아니, 그런 이성애는 꼭사망도 항상 공개적인가? 그런 거예요? 공개적으로 사랑한다는 건 어떤 건가요? 이렇게 정말 간단한 상상력도 동원하지 않은/못한 건 시간이 없어서였을까 아니면 조사자의 성의식 때문이었을까? 일관적으로 이성애중심주의를 보여주고 있는 설문조사와 기사 내용으로 보아, 그것은 아마도 그들의 성의식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정말이지 이번 <연세춘추> 문화특집 덕분에 성의식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이성간 성기결합 섹스를 하는 사람도 있고, 성기가 중심이 되지 않지만 성적이기 그지없는 섹스를 하는 사람도 있고, 성기결합 섹스보다 키스가 더 성적이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다. 어떻게 자신이 이성애자가 되었는지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사람도 있고, “몇 년간 구구절절이 고민해봤는데, 자신 같은 성적지향을 가진 사람들을 ‘양성애자’라고 하는 것 같더라”는 사람도 있고, 연애와 섹스에 대한 칼럼니스트의 인터뷰에 삽입된 일러스트가 왜 우(여자를 나타내는 기호)와 송(남자를 나타내는 기호)가 하트를 흘리며 서로 얹혀있는 그림인지 경험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도 있으며, 성적인 것에 별로 마음이 통하지 않는 무성애자(asexual)도 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사람들은 더 다양한 순간들을 살아낸다. 이런 사람들의 성의식을 알아보겠다는 건 정말 야심찬 계획이다. 그러나 무작위 표본 추출을 거치지 않았다는 통계적인 문제와 설문조사 전반에 걸쳐 남발된 모호한 표현과 비문, 그리고 완성도가 높지 못한 질문⑬들로 인해 그 계획은 실현되지 못했다. 그리고 가장 문제적인 것은 설문조사와 기사 전반에 잔뜩 실려 있는 <연세춘추>의 성기중심적이고 이성애중심적인 성의식이었다. 이러한 성의식을 토대로 연세인의 성의식, 더 나아가 대학생들의 성에 대해 논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왜곡된 분석을 생산하고 그러한 문제적인 성의식을 직간접적으로 독자들에게 심어주게 된다. 춘추가 지난 1646호에서 보여준 성의식이 가장 일반적이고 평범한 성의식이라고, 그게 대학 중앙언론의 이름을 걸고 발행되는 주간 신문에 걸맞은 성의식이라고 할 생각이라면, 당장 그 생각을 집길 바란다. 사람들이 살아내는 그 모든 다양한 순간과 삶이 무색해지지 않게 말이다.

⑥ 물론, 여기서 앞서 언급한 이성간 성기결합섹스를 중심으로 섹슈얼리티를 상상하는 사고방식은 결코 이성애중심주의와 관련이 없지 않다. 사회에서 “순—모동과 男男—키스—여우—성기결합섹스” 순서로 이어지는 피라미드의 최정점에 위치한 성기결합섹스는 당연히 여성의 할애 “삽입”을 행하는 남성 성기를 중심으로 해석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기결합섹스 중심적인 성의식이 이성애중심주의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⑦ <연세춘추>가 실시한 설문조사 중 11번 문항 참고.

⑧ 이재은, “연세인, 당신의 성의식은 어떤가요?”, <연세춘추> 제1646호(2010년 10월 11일자) 8면 참고.

⑨ <연세춘추>가 실시한 설문조사 중 36번 문항 참고.

⑩ 위 설문조사 45번 문항 참고.

⑪ 위 설문조사 46~48번 문항 참고.

⑫ 이 질문은 간접적으로, 청소년기 동성애는 남녀 공학이 아닌 학교에서 이성간의 대안으로서 많이 나타난다는 편견을 반영하고 있다.

⑬ 예컨대, “성애에 대한 인식”을 묻고 있는 19번 문항. 단언컨대, 그 어떤 재간동이라도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전혀없음 1 2 3 4 매우큰 없음 5” 중에서 고를 수 없을 것이다.



사회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는 기제들

화학적 거세

사회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는 기제들

0.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2011년 7월부터 발효된다고 한다.

1.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법'은 '화학적 거세법'이라고 미디어에서 회자된다. 이는 '거세'라는 단어에 부여된 의미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화학적'이라는 단어가 붙어 그 의미가 덜 직접적으로 다가올지라도 '거세'는 가부장제 사회 내에서 남성에게 가하는 가혹한 형벌 중 하나이다. 원래의 명칭인 '약물 치료법'이든 선정적 형벌의 의미인 '화학적 거세법'이든 간에, 이 사회가 성 범죄자를 치료가 필요한 병적인 이상자라거나 가혹한 형벌로 추방해야 할 사이코패스정도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우리'와 '성폭력 범죄자'를 철저히 분리하고 있다. 이런 논리에 따르면 성폭력 가해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관계없는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우리'는 성 범죄자를 추방하기만 하면 이 사회에서 성폭력이 해결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사고방식 속에서 현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적 문화와 가부장적 분위기를 돌아보기는 어렵다. 이 사회에는 수많은 '매력적인' 섹스방법으로 포장된 강간 포르노가 넘쳐나고, 여러 미디어에서는 폭력적인 성적 상황연출이 일상적인 성적 판타지로 등장한다. 이러한 성폭력적인 사회문화에 대한 고민 없이 성폭력을 '비정상적인' 사람에 의한 재난정도로 여기게 된다면, 일상적인 성폭력을 만들어내는 사회 환경이나 구조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다. 기혼부부의 아내강간이나, 데이트 속에서 발생한 데이트성폭력은 일상적인 성폭력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성폭력적인 문화가 넘쳐나는 사회 속에서 이러한 상황은 성폭력이 아닌 '약간 거친 애정표현' 정도로 인식되는 것이다. 흔히들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떠올리는 이미지만 "정신이상자에 의한 재난적인 성적인 폭력"이라는 성폭력 각본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러한 성폭력 각본에 맞지 않는 일상적인 성폭력적 문화나 상황들은 성폭력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당연한 일상으로 포장되어, 그 안의 폭력성을 드러내고 문제제기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

2.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법'은 약물을 투여하여 성범죄자의 성충동을 완화시킨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의 문제는 성폭력의 원인으로 '성욕'을 들었다는 지점에 있다. 성폭력의 원인으로 성욕을 제시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다. 수많은 성폭력사건을 인간의 기본적 욕구가 해소되지 않아 일어난(혹은 호르몬 과다분비로 인한 질병으로 비롯된) '불행'으로 치부하여, 가해자나 사회의 폭력성을 정당화시키기 때문이다.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성욕'이라는 설명방식은 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구조나 성폭력적인 사회 분위기를 성찰하지 못하게 한다. 오히려 남성의 성충동은 자연스러우므로, 성폭력을 피하려면 남성의 성충동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을 키우게 되어, 피해자 여성에게 도리어 책임을 전가하는 억압적인 상황을 만들어낸다. 많은 성폭력 문제의 본질이 약자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문제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폭력 사건 해석에 있어 그러한 폭력적 권력 구도에 대한 성찰이 너무도 부족하다. 소위 '화학적 거세' 법안도 성욕을 성폭력의 원인으로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여기에 얽힌 권력구도를 재생산하는데 일조하게 되었다.

3.

'약물 치료'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점은 여기에서 사용되는 약물이 소위 '여성호르몬'이라 불리는 것이란 점이다. 이 호르몬을 남성에게 투여하면, 사회 규범적으로 '여성의 몸'이라고 하는 신체적 특징이 나타난다. '여성호르몬'은 성욕을 억제시키는가? 성폭력을 호르몬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은 '여성은 남성에 비해 성욕이 없다'는 편견에 기초한 것이란 점에서도 문제다. 여성은 성욕이 없는가? 이는 여성에게 성에 무지하고 성관계에서 수동적이 될 것을 요구하는 사회 속에서 만들어진 이데올로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일 뿐이다.

4.

또한 호르몬 투여로 '여성화'된 몸을 갖는 것이 범죄자 처벌의 수단이 된다는 것 역시 이상한 점이 많다. 남성에게 '여성화'가 처벌이 된다는 것은 이 사회에서 몸에 관하여 의미체계와 가치관,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유방이 나온다던가, 체모가 줄어드는 신체적 특징들은 '여성의 몸'으로 일하게 되고, 이러한 신체적 변화는 '거세', 즉 남성성 박탈로 이야기된다. 위의 변화들이 왜 '남성의 자력'에 위협이 되는 이유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의 몸/남성의 몸'이라는 구분과 위계가 절대적이며, 이를 넘나드는 것은 '비정상'으로 낙인찍히기 때문이다. '여성화'된 남성의 몸이 처벌당한 몸을 표상(表象)한다면, 이것은 여성과 남성사이의 권력관계를 드러내줄 뿐만 아니라, '여성'이 되는 것이 처벌을 의미하게 되는 이 사회의 여성혐오를 말해준다. 남성에게 '여자 같다'고 말하는 것이 모욕적으로 해석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동성애자 남성을 비하할 때, "여자 같다"라는 식으로 혐오발언을 하는 것으로도 드러난다. (또한 '놈'에 비해서 '넌'이 더 심한 욕설로 통용되는 것은 이러한 맥락과 비슷하다.)

젠더를 표상하는 일차적 매개체인 몸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트랜스(trance)된다는 것이 처벌로 일한다는 점에서 트랜스젠더 혐오이기도 하다. 이러한 성별과 몸의 규범이 무너지는 것이 처벌로 인식되는 사회에서, 트랜스젠더의 삶과 존재는 비가시화되며, 트랜스 혐오는 더욱 공고해진다.

5.

'비정상인' 가해자를 추방함으로써 이 사회의 '정상성'을 확인하려는 방식으로는 성폭력사건은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성폭력 문제의 진정한 해결방안은 피해/생존자가 스스로를 치유하는 힘을 기르고, 가해자가 재범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고, 또 다른 성폭력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적 차원의 성찰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선정적 담론은 사회의 성폭력적인 사회 구조에 대한 성찰을 불가능하게 하고, 사회의 성폭력적인 구조를 정당화하는 데 일조한다. 또한 처벌 방식이 여성과 비이성에 정체성을 혐오하는 방식에 기반하고 있다면 성폭력은 해결될 수 없다. 성폭력이 생기는 전제 자체가 이러한 혐오와 권력관계이기 때문이다. '화학적 거세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법은 성폭력을 가능케 하는 사회구조를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사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 규범을 공고히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폭력 사건을 해석하고 대책을 고민하는 데에 있어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그 안의 권력관계를 드러내고 타파할 전략을 세우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슬샘에서 에코페미니즘 생각하기



55분쯤 총여실을 나가 서둘러 걸어가면 정각에는 이와 대에 있는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매장인 이슬샘에 도착한다. 실무자 분들에게 인사를 하고 행장 연두색 조끼를 입는다. 제일 먼저 음료수 냉장고부터 살핀다. 가지런히 2층으로 정렬된 음료수 매트릭스 중에 빈 곳이 있으면 냉장고 뒤편 밑 칸에 모아놓은 박스에서 음료를 꺼내 채워놓는다. 뒤편 밑 칸에 재고가 없으면 창고에서 가져온다. 캔도 있고 페트도 있고 병도 있다. 힘이 좋지 않아서 박스는 하나하나 옮기는 편이지만 채워야 할 박스가 너무 많은 날은 실무자 분과 함께 끝자를 끌면서 한번에 10박스도 나른다. 삼각/김밥이나 덮밥이나 롤이나 유제품이 오면 우유냉장고도 채워 넣는다. 컵라면과 과자도 쌓아 놓는다. 중간 중간 쓰레기통 분리수거도 하고 냉장고에서 물도 빼내고 물통에 뜨거운 물도 담고 테이블도 담고 걸레도 빨고 실무자 분들과 이야기도 나눈다.

나는 이슬샘에서 일하는 '근로장학생'이다.

생협에서 난 이익을 장학금 형태로 조합원들에게 환원시키는 한 형태가 근로장학생이다. 하지만 사실 근로장학생

이란 단어는 좀 웃기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일한 대가로 시급 오천원 받는 건데 장학생이라니... 최저임금 4110원에서 세금 떼어 가는 거 제외하고 생각하면 천원쯤 장학금 받는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노동 강도 대비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큰돈은 아닌 것 같다. 이러면서 (생협 이익금을 우선 다 받아 가는) 학교는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 비용을 계산할 때 나의 월급도 어쨌든 이름은 장학금이라고 계산할 때 집어넣겠지. 웬지 불만스런 나는 그래서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그냥 이슬샘에서 근로한다고 말하곤 한다.

어쨌든 학생으로서가 아닌 조합원이자 노동자로서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으면 학생 정체성과는 다르게 좀 거리감을 가지고 보이는 것들이 있다.

우선 사람들은 참 많이 먹고 마신다. 하루 3시간 일하면 1시간 30분은 쉬지 않고 음료수 박스를 나른다. 육개장 컵라면을 9개씩 4단을 진열해 놓는데도 쉬는 시간 두 번이 지나 가면 컵라면은 모조리 사라지고는 한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 소비하는데도 먹을 것이 입까지 가기까지는 습관적이거나 혹은 시답잖다. 대부분 사람들은 뭘 먹을까, 제육덮밥과 참

치킨밥과 주먹밥 앞에서 서성이다가 옆 사람에게 이거 맛있어? 한번 묻고, 혹은 나에게 묻고, 먹을 게 없네- 하고 중얼거리든가 혹은 가격을 대충 보고서, 혹은 나에게 묻고서 적당히 골라 먹는다. 모두가 중요한 것은 누구와 먹느냐와 가격 정도일 뿐(맛은 그나마 타협하고 오는 것 같다. 다 똑같다. 며) 불만족스러운 구매를 하는 것 같다. 먹으면서 무얼 하느냐만이 중요한 편이지, 먹는 것 자체엔 즐거움이 없는 것 같다. 당연히 본인이 먹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건 그냥 돈과 바꾼 무엇일 뿐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먹고 난 뒤 남은 것들을 버린다. 분리수거 통이 있지만 분리수거는 정말 끔찍할 정도로 잘 되지 않는다. 그것은 단순히 사람의 탓이 아닌 것 같을 때도 있다. 예를 들어 제육볶음의 집포장은 비닐, 즉 일반쓰레기이지만 뚜껑은 플라스틱이다. 물론 제육볶음이라고 쓰여 있는 종이는 종이쓰레기다. 제육볶음이 든 하얀색 얇은 그릇과 숟가락은 플라스틱이다. 밥이 든 김은 그릇은 종이쓰레기다. 물론 비벼먹은 밥이나 양념이 남았다면 그것은 라면 국물 통 음식물 찌꺼기 체에다가 버려야 한다!!! 제육볶음 한 덩어리를 분리수거 하고 있노라면 도대체 포장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 좋은 기술력을 왜 쓰레기를 만드는데 쏟아 부었는지, 혹은 사람이 편리하게 산다는 건 쓰레기와 나 같은 사람의 노동력이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하는 것인지!!! 포장된 음식 상품에 진저리가 쳐진다. 그렇지만 이 역시 분리수거 하고 있는 자의 진저리일 뿐이지 버리는 사람의 진저리는 아닌 걸까?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의 동작은 '쓰레기통 지나치는 김에 손에 있는 것을 놓아버려요' 이지 그 외의 별 의미는 없는 것 같다.

정말이지 포장된 음식 상품은 엄청나게 소비된다. 그렇지만 소비하는 양에 비해서 사람들은 먹는 것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정말 무관심해 보인다.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커피는 어디 저 멀리서 석유를 소비하며 배를 타고 와서 어느 공장에선가 전기를 소비하며 사람들에게 의해 가공되고 나라 구석구석 어디어디로 차와 사람의 손을 통해 옮겨지고 중국에는 나의 손을 거쳐 진열된다. 그건 커피 '콩'의 애기고 커피 '캔'은 또 다들 테지. 버려진 커피캔은 나의 손을 거쳐 내용물이 제거되고 미화직 노동자 분들에게 의해 분류되고 어디어딘가를 거쳐 공장에 가서 구겨지고 재활용되거나 땅에 묻혀서 나는 중금속이라며 땅과 물에게 말을 걸어대겠지. 물건은 그냥 진열대에 그냥 당연하게 딱 놓여 있

게 되는 것이 아니다. 쓰레기통에 버리면 그 물건이 그냥 뿔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진열대 위에서 가지런한 매트릭스를 뿔내는 물건들이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쳤어야 했고 거쳐 가야 하는 것인지, 잘 보이지 않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다.

아까 말한 분리수거에 대한 것인데, 또 가끔 보면 사람 맞인 것 같을 때도 있다. 쓰레기를 버리는 학생들이나 분리수거 하는 나나 실무자분들이나, 사실 다 조합원이다. 연대생협은 학교 구성원이 되지만 하면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는 유니온 살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모두 다 생협의 운영자이건만(생협은 조합원이 소비자이자 생산자이자 운영자니까) 학생들은 나를 전혀 같은 운영자로 보지 않는 듯이 느껴질 때가 있다.

이슬샘 근로장학생의 일이란 건 이슬샘을 이용하는 학생조합원들이 볼 때는 어떤 느낌일까.

내가 근로 조끼를 입지 않고 무거운 것을 들고 갈 때는 쉽게 나약한 여성으로 여겨진다. 지나가던 남학생들은 자연스럽고 도와주려고 하거나 안 도와주더라도 뭔가 안절부절 못하며 쳐다본다.(그건 젠더규범???!) 그렇지만 근로 조끼를 입는 순간 난 전혀 다른 사람으로 여겨진다.

물론 당장 눈앞에서 박스를 떨어뜨리거나 하면 다들 도와주지만 어쨌든 노동자로 보이는 것은 제법 커서, 그리고 노동자이면 학생과는 뭔가 완전 다른 계급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나는 당연히 일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서, 무거운 걸 쟁쟁거리고 가면 흠뻑 땀을 무시하기도 하고 쓰레기통을 붙잡고 씨름하는 걸 보면서 분리수거 하지 않고, 그래, 내가 하는 일이니까 마지 하렴, 플라스틱 쓰레기와 종이 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한곳에 집약시켜놓은 쓰레기를 내놓고 버리기도 한다.

물론 일부가 그렇다는 것이다. 일부가...(권력관계에 끼들어서 나는 잘난 학생이라 과외하며 돈 벌지만 너는 뭔가 모질라서 그런 일 하고 있겠지, 라고 바라보는 일부...) 내가 음료정리하고 있으면 자기 음료수 꺼내 가야 하는데 말 못하고 쭈뼛대는 학생들도 있다.(예고, 내가 다 미안하게, 조합원은 평등하답니다, 편하게 말 하세요~) 어쨌든 노동자라는 정체성으로 보았을 때 나는 생협이 참 좋다고 생각한다. 일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근로 중에 꼭 한번 이상 쓰레기통을 비우게 되는데 손에 고무장갑을 끼고



쓰레기통을 뒤져서 이런저런 쓰레기를 분류하고 있는 썩은 표정의 나를 학생들은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설령 그 때문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습을 보며 이런 어떻게 버리면 돼요? 하고 물어보거나 내가 버리는 모습을 보며 분리수거를 하거나 고맙다고 말한다. 학교의

노동환경 시스템은 학생들 편하라고 새벽 네다섯시에 힘들게 쓰레기를 치우는 미화직 노동자들을 보이지 않게 만든다. 학생들은 그런 시스템에 대한 생각은 못하고 매일 아침 깨끗해지는 백양로와 학관 쓰레기통을 보며 쓰레기가 어디론가 뚝 사라진다고 철부지같은 생각을 하며 마구 어지럽혀댄다. 학생들이 편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남긴 것들이 이렇게 누군가의 손을 거쳐서 깨끗해진다는 것을 본다/보여준다는 것은 좋다. 나 역시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누군가가 이걸 어떻게 치울까 생각하게 되었으니까. 또 음료수 진열도 마찬가지다. 24시 편의점들은 음료수 냉장고 뒷부분이 트여 있고 트인 부분은 창고와 연결되어 있어 뒤편으로 음료 진열을 하게 되어있다. 유통기한에 따라 쉽게 진열할 수 있고 이용자의 동선을 방해하지 않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생협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근로장학생이 이용자들의 동선 안에서 보란 듯이 음료를 진열한다. 단순히 소비자 중심의 영업행위를 하는 곳이 생협이 아니기 때문이다. 생협에서는 일하는 사람도 이용하는 사람도 다 똑같은 조합원이기에 모두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랄까. 단순히 공간적 문제를 내가 좋게 바라본 건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우연이든 의도적이든 생협이 본래 생협이 추구해야 할 가치대로 존재하는 것 같아서 왠지 내가 다 기록하다.

어쨌든 이슬샘 근로는 몸이 힘들긴 하지만 재밌다. 이것저것 아무생각 없이 일할 때도 분명 있긴 하지만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의미를 발견하기 좋은 공간이랄까.

나의 삶 속에서 어떤 관계성이 숨어있는가 바라보고 짚어내고, 자본의 위계에 따라 관계성을 은폐하거나 누군가를 착취하지 않는 방향을 지향하는 것이 에코페미니즘이라면, 이슬샘에서 근로장학생은 에코페미니즘을 생각하기에 참 좋은 위치이다. 내가 먹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분들과 관계를 맺어가며 세계 곳곳에서 나에게까지 왔는지 또 나로부터 다른 곳으로 가는지, 그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노동자라는 존재가 얼마나 쉽게 보이지 않게도, 보이게 되기도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생협이 원재료부터 조합원 손까지 들어오는 과정을 잘 드러내는 상품을 구매한다든가, 포장이 과하지 않은 상품을 구매한다든가, 조합원으로서 그런 구매를 지지하는 의견을 낸다든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불어 실무자분들이나 다른 근로장학생들, 혹은 생협에서 일하지는 않지만 용역업체에 소속된 경비/미화직 노동자 분들과 얘기를 나누다보면 그간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관점이나 세계를 접하게 되기도 한다. 그것은 내 좌표축을 확장하는 과정인 동시에 내가 어떤 경우에 어떤 위치에 있게 되는지 알게 되는 과정인 셈인데 내 위치의 변화를 추적/분석 하는 것도 꽤 재밌다는 거.

마지막으로 이슬샘을 이용하는 조합원들을 위한 팁!



- 라면 두개는 때어서 일반쓰레기통으로!
라면 용기는 그냥 라면용기 쓰레기통에!
나무젓가락은 일반쓰레기통에!
- 샌드위치 플라스틱 용기는 플라스틱쓰레기통에!
달여있는 비닐은 때어서 일반쓰레기통에!
- 쓰레기는 부피별로 분리수거 하는 거 아닙니다.
한 용기 안에 여러 가지 쓰레기 꼭꼭 쑤서 넣어 버리지 마세요!
- 냉장고 문 잘 닫고 다닙시다!
- 실무자분들에게도 인사합니다^^

여성주의 학교 : 흰 토끼 안녕?



↑ Intro

앨리스는 강둑 위에서 할 일도 없이 언니 옆에 앉아 있는 것이 몹시 지루해지기 시작했다. 언니가 읽는 책을 두 번 훑음거리 보았지만 책에는 그림도 없고 대화도 없었다. [중략] 바로 그때 눈이 빨간 흰 토끼가 옆을 달려갔다. (중략) 하지만 그 토끼가 <조끼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 한 번 보고, 서둘러 가는 것을 보자 앨리스는 발딱 일어났다. 전에는 주머니가 달린 조끼나 거기에서 꺼내 볼 시계를 가진 토끼를 본적이 없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기 때문이다. 그리고 앨리스는 호기심에 불타서 토끼를 쫓아서 동산을 달려갔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L 토끼 굴로 내려가다 중에서

그리고 앨리스와 흰 토끼의 마주침은 앨리스를 이상한 나라로 이끌었다.

#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갈 즈음이었다. 날씨가 어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대체 왜 읽어야 하는지도 모르겠는 전공책, 그 책이 너무나도 지겨워서, 난 백양로를 걷고 있었다. 백양로에서는 언제나 그렇듯 수많은 플랑들이 발을 걸고 있었다. 평소에도 백양로의 플랑들을 꼼꼼히 읽는 편이지만, 그날은 기말고사 기간이어서 더욱 더 천천히 흥미롭게 플랑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었다. 시험 기간에는 신문과 함께 오는 이마트 전단지도 재미있는 법이니까. '여성주의 학교'가 열린다는 것을 안 건 그때였다.

그때까지 여성주의는 나랑 상관이 없었다. 난 '남성'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믿었고)이었고 여성주의는 '여성'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었으니까. 여남불평등^①이 존재하고, 이를 해결해야한다는 말은 이해할 수 있었고, 그 필요성도 인정할 수 있었지만, 나의 이야기는 아니었다. 그러니 여성주의, 여성주의 운동은 나의 생각, 나의 운동이 될 수 없었다. 그런데도 난 왜 들으려 했을까?

① 글을 쓰다가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 한글과 컴퓨터에서 여남불평등은 별간 줄이 생기지 않는데, 여남불평등은 생긴다. 여남불평등은 존재하지 않는 단어이다. 단지 남과 여를 바꿨을 뿐인데 이는 우리가 쓰는 말이란 것에 존재하는 권력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궁금했다. 매체를 통해서, 대자보를 통해서, 각종 입소문을 통해서 만나는 그 이야기들이,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고, 아직 이해할 수 없지만 무언가를 품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이야기들이 오가는 그 장이 궁금했다.

#

작은 문 앞에 서서 기다려 봤자 별 수 없을 듯했기에 앨리스는 학자로 돌아왔다. (중략) 그러나 이번에는 작은 병이 하나 놓여 있었고(아까까지는 여기 없었는데.....)하고 앨리스는 말했다. 병 목에는 <나를 마시세요>라고 또박 또박 아르답게 적힌 종이가 둘러 있었다.

<나를 마시세요>라고 말하니 아주 좋기는 하지만 똑똑한 꼬마 앨리스는 조금하게 <그 말>을 따르려 하지 않았다. <먼저 잘 살펴봐라>, 앨리스가 말했다. <독약>이라고 쓰여 있는지 안쓰여 있는지 알아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1 토끼 굴로 내려가다 중에서

역시나 여성주의 학교에 들어서기 위한 문은 비거웠다. 난 조심성이 지나치게 많았다. 조심하고 조심했다. <나를 마시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그 병을 쉽게 열 수 없었다. 메일을 몇 번이나 쓰고 지우고, 메일을 보내고 나서도 고민 했다. 병을 열기위해서 살짝 힘을 주었지만, 쉽게 열리지는 않았다. 난 병을 열고도 고민을 했다. 여성주의 학교가 열리는 공A에 가서도, 문을 열 것인지, 아니면 그냥 돌아설 것인지. 멈칫, 멈칫..... 병에 <독약>이라는 표시가 없다는 걸 몇 번이나 확인하고서야 나는 그 안에 있는 액체를 가짜스로 삼킬 수 있었다. 알 수 없는 무언가를 새로 만나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불안과, 회열과 함께.

그렇게 난 여성주의 학교를 따라서, 여성주의에 들어섰다.

여성주의 학교는 나를 여성주의라는 이상한 나라로 초대한다. 나의 '흰 토끼'였다.

#

이윽고 앨리스는 물담뱃대를 입에서 떼더니 나른하고 졸린 목소리로 말했다. <넌> 누구지?, 앨리스가 말했다. 대화를 시작할 때 좋은 내용은 아니었다. 앨리스는 다소 수줍어하며 대답했다. <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요.....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만 해도 제가 <누구였는지> 알았지만 그 뒤로 여러 번 변한 듯해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5. 앨리스가 해준 충고 중에서

여성주의가 보여준 세계는 낯설었다. 토끼가 시계를 들고 다니고 앨리스가 담배를 피우고, 트럼프 카드가 병졸들이 되는, 고양이 가 희미한 웃음을 남기면서 사라



지는 세상이었다. 자연스러웠던 것이 부자연스럽게,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았던 세상의 이야기가, 몸이 목소리가, 삶의 그림자들이 내 눈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곳은 <저년의 목을 잘라라>, 또는 <저년의 목을 잘라라>라고 말하는 권위적이고, 무서운 여왕이 사는 곳 이었고, 그 여왕은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다른 살들을 무참히 죽여 버리고 있었다.

그런데 실은 여성주의의 세계는 내가 알고 있고 살고 있는 그 세계였다. 여성주의는 세계를 바꿀어버렸다. 정확히 말하자면 여성주의는 원래 바뀐 세계를 적시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바뀐 세상을 네모나 보이게 구획하는 경계들이 드러나면서 펼쳐지는 이전과 다르지만 같은 세계. 그리고 세상이 변한다는 것은 바로, 그 세상을 보는 <내>가 변한다는 것이었다.

여성주의 학교를 가기 전 고작 세 네 달 전이었을 뿐인 그때의 나, 여성주의를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나, 그리고 지금의 나는 다른 내가 되어버렸다. 아니 굳이 그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도, 여성주의 학교 후, 여성제를 거치지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또 다를 꺼다.

지금 내게 물담뱃대를 피는 앨리스가 나에게 <넌> 누구지?라고 묻는다면, 난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 걸까? 혹은 <넌> 페미니스트지?라고 묻는다면.....

#

<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요.....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만 해도 제가 <누구였는지> 알았지만 그 뒤로 여러 번 변한 듯해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5. 앨리스가 해준 충고 중에서

앨리스의 대답은 솔직하고, 그래서 현명한 대답이다. 난 아직 내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직 스스로 페미니스트라 부르길 주저하고 있지만, 여성주의 학교를 따라서, 이상한 나라를 만나고 난 후 나는 변했다/변해가고 있다/변할 것이다.

† Outro

하지만 앨리스가 떠난 뒤에도 언니는 턱을 괴고 가만히 앉아 저무는 해를 바라보며 어린 앨리스, 그리고 앨리스의 멋진 모험에 대한 생각에 잠겼다. (중략) 앨리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고, 눈으로 <홀려 내리러> 머리를 뒤로 넘기느라 앙증스럽게 고개를 찡하는 모습도 선명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어린 동생의 꿈에 나타난 신기한 생물들이 되어 살아 움직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앨리스의 종언 중에서

앨리스의 언니는 앨리스의 이야기를 듣고 이상한 나라와 마주칠 수 있었다. 앨리스의 언니에게 흰 토끼는 앨리스가 아니었을까? 나도 누군가에게 흰 토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누군가를 내가 만나게 된 이상한 나라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런 흰 토끼로 말이다.

by 아련한 여름의 기억 속에 잠긴 스츠

사진으로 다시 보는
제12회 여성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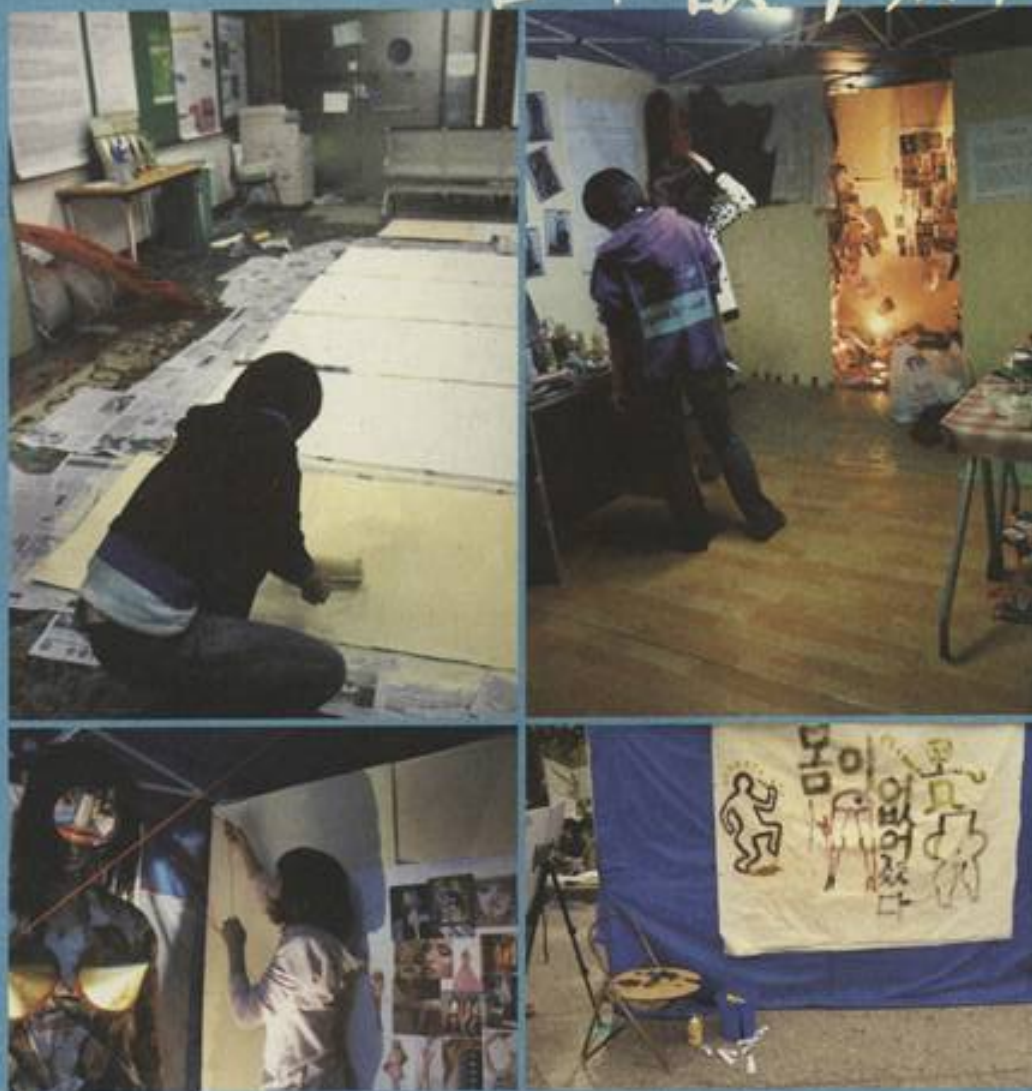
몸이 없어졌다



몸이 없어졌다



몸이 없어졌다





모씨의 옷장

여기에 놓인 사진들을 보면서
당신은 사진의 주인공인
모씨를 상상할 수 있었나요?
이 사진들의 주인공들이
다 같은 사람을 찍은 것이라는
생각을 하셨는지요.
한명의 모씨의 사진들입니다.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각 사진에서 '여성스러운' '조신한' '몸
잡는' '남성' '활동적' 등등의 이미지를 매치시키며 모씨가
어떤 사람인지 가늠하려고 노력하시진 않으셨나요.
우리의 몸은 몸 자체로 읽힌다기보다 몸을 어떻게 바라보
고 해석하는가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모씨를 '여성' 이라고 판단하게 되는 지점은 어떤 지점인가
요. 아니면 모씨를 남성이라고 상상한 지점이 있다면 그 것
은 어떤 기호와 해석들로 판단하게 되었나요?
옷은 특정 신체의 부분을 부각시키거나 과장하거나 이미지
로 그 사람의 특성들을 상상하도록 만듭니다. '남성인가 여
성인가' '이 사람이 어떤 남성인가 혹은 어떤 여성인가'
'젠더규범에 들어맞는가 아닌가'를 순식간에 느낌으로 파
악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보니 남성과 여



?

어떤 몸의 실루엣을
떠올리나요?

성이라는 판단을 계속해서 내리려는 것은 조금은 이상할
법도 합니다.

"여자인데 남자옷을 입고 남자용내를 내는 거였네" 라든가
"남자인데 여자옷을 입고 여자처럼 설정한거네" 라는 식으
로 어떻게든 규정을 하여 어떻게든 성별을 규정내리고 모
씨의 성별자체가 혼란스러운 것을 막으려고 한다면, 왜 그
렇게 그 성별이분법에 맞게 자르고 설명을 붙여서 모씨의
몸을 판단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시다.
"남자용내" 라든가 "여자처럼 설정"이라고 했을 때, 왜 어
떤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에 맞는 것이고 다른 것들은 혼내
나 연출로 여겨지는 것일까요. 사실 모씨가 어떤 성별이라
고 판단하는 순간 어떤 것은 설정이 된다는 점에서, 보는
이가 어떻게 판단하는 지에 따라 '연출'과 '자연스러움'의
경계는 변동되고 혼동됩니다.

결국 이 '여성의 몸' '여성스러움' '남성의 몸' '남성스러
움' 등은 사실은 모두 다 연출이고 설정이라는 것을 보여드
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진들에서 무엇을 보셨나요? 무엇을 잘라내
고 끼워 넣고 오려 붙이고 있나요? 어떻게 이사진들을 해석
하고 있나요?
원피스에 여성의 몸을 일대일로 매치시켜버리는 그 순간,
츄리닝을 입고 다리를 벌려 앉아 쉬면 모씨는 잘려나갔습
니다. 그렇게 차례차례 모씨는 옷들을 아무렇게나 걸어놓
고 없어졌습니다.

다시 모씨를 떠올려보세요. 여전히 헛갈리나요? 어떤 몸의
실루엣을 떠올렸나요?

by 제12회 여성제 기획단 전시팀



폐막식 “공간 비틀기 게릴라: 곰게는 안 죽는다” 다이-인 die-in 퍼포먼스



다이-인(die-in) 퍼포먼스 저항의 표현 중 하나로, 퍼포먼스 참여자가 죽은 모습을 몸짓으로 재현함으로써 저항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반대하는 시위에서 이 퍼포먼스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죽은 모습(피를 흘린다든지 고통스러운 표정 등)을 연출하기도 한다. 이를 보여줌으로써 현 사회의 폭력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특징이 있다. 이 퍼포먼스에서는 사회의 부조리함을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피켓이나 그림, 조형물과 함께 다이-인을 하여 저항의 메시지를 드러내는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공학원 지하에서 사라진 휠체어 이용하는 몸

식당 입구까지는 엘리베이터를 통해 접근 가능하다. 하지만 음식을 주문하고 받을 때 높낮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실제 사용이 어렵다. 식당 리모델링 이후에는 자리가 좁아져 불편하다.

학술정보원에서 사라진 휠체어 이용하는 몸

대열람실과 컴퓨터 이용 공간 중 B 섹션에 장애인 전용 열람석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곳은 의자만 있을 뿐 일 반석과 다를 바 없는 비좁은 공간이다. 특히 컴퓨터 이용 공간이 심하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경우 리프트를 통해 이용할 수 있지만, 원형 책상에 칸막이가 있는 형태여서 자리가 비좁을 뿐 아니라 구석에 장애인 전용 열람석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좌석까지 이동하기 어렵다.

백양관에서 사라진 휠체어 이용하는 몸

입구에 경사로가 있고 내부에 장애인학생지원센터가 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가 전혀 없으므로 2층(로비), 1층(정보통신처 등), 3층, 5층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각각의 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밖으로 나오는 2층 출입구(정문, 후문), 1층 출입구, 건물 뒤편에 있는 3층 출입구, 5층 출입구를 각각 이용해야만 한다.

대강당에서 사라진 휠체어 이용하는 몸

수많은 동아리실이 밀집해있으나 휠체어를 타고는 화장실 이용이 매우 매우 불편하다. 그리고 대강당의 내부는 계단식이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입구까지는 진입할 수 있어도 내부에서는 이동이 불편하다.

외솔관에서 사라진 휠체어 이용하는 몸

외솔관으로 진입하는 앞쪽 길은 울퉁불퉁하다. 1층과 2층에는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 성별 구분 없이 단 하나씩 있다. 외솔관의 대형 강의실은 대부분 계단식 강의실이며, 들어가려면 역시 계단을 통해야 한다. 그리고 강의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책상을 휠체어를 타고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계단 가장 위까지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실상 사용이 불가능하다.

연희관에서 사라진 휠체어 이용하는 몸

연희관에 엘리베이터가 생긴다는 소식은 만국의 토끼와

거북이가 환영할 소식이다. 그러나 이 곳의 화장실은 1~2년 전에 리모델링했음에도 불구하고 휠체어를 탄 경우 혼자서는 이용이 거의 불가능하다. 새로 생긴 1층 여자화장실은, 장애인 이용이 가능하다고 표시되어 있는 곳이고 문도 미닫이문임에도 불구하고 자동문 기능은 전혀 없고, '굉장히 무겁다.

빌링솔리관에서 사라진 휠체어 이용자의 몸

건물 안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1층밖에 이용할 수 없다. 또한 1층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은 여남 구분이 안 되어 있으며, 여닫이 문으로 되어 있다. 현재 이 공간은 청소도구 창고로 기능하고 있다. 학교는 장애인 화장실 개선을 빨리, 미화노동자에게 마땅한 도구함과 휴식처를 빨리 제공해야 한다.

자판기에서 사라진 시각 장애인의 몸

복도에 불쑥 튀어나온 이 자판기는 시각 장애인의 진로를 불쑥 방해한다. 이 학교에는 계단에도 복도에도 화장실에도 점자블록이 설치된 곳이 거의 없으며, 강의실 문과 손잡이에 점자 안내판이나, 약시자를 위한 강의실 번호 확대판도 더 많이 설치될 필요가 있다. 학교에 가로등이 적어서 저녁



에 충분한 밝기를 내지 못하는 까닭에 밤의 백양로 역시 시각 장애인에게는 위험해진다.

기숙사 가다가 사라진 성폭력에 대한 공포

매일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기숙사를 오르내릴 때 너무 어두운 길은 가슴을 졸이게 한다. 기숙사 길과 청송대는 가로등이 너무 적어서 앞에서 누군가 다가오고 있는지 실루엣정도만 파악할 수 있을 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표정을 하고 어떤 것을 들고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이 길을 통과하는 것은 매일 성폭력에 대한 공포를 잊을 수 없는 많은 몸들에게는 너무나 괴로운 극기훈련같은 느낌이다.

학술정보원에서 사라진 시선에 노출된 몸

일단 학술정보원에 전면유리로 되어있는 많은 열람실과 세미나실은 치마를 입었을 경우 밑에서 얼마든지 속이 비춰보일수도 있다. 항상 대상화되기 쉬운 여성의 몸에 대한 고려가 없이 지어진 이 유리벽은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시선을 꽂을 수 있는 가능성을 완히 열어두었다. 또한 여학생 휴게실의 경우 허술한 칸막이만 설치되어 있을 뿐 역시 유리처럼 뚫려있다. 여학생 휴게실이 학교에 팽배한 가부장적 시선으로 놓지도 자유로이 쉬지도 못하는 여학생들이 여기에서

만큼은 차단된 공간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지어졌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논지당은 얼마 전까지 행정사무처가 임시 사용하면서 여학생휴게실의 기능을 없애려 들었다.)

학생회관 화장실에서 사라진 성폭력에 대한 공포

학교 화장실의 칸막이는 위아래가 뚫려 있다. 학생회관에는 화장실 안에 샤워실이 있지만 그마저도 화장실 칸막이와 아무런 차이 없이 위아래가 뚫려있다. 화장실이나 샤워실과 같은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에 대해서, 그러한 성폭력을 두려워하는 몸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은 배치임이 분명하다.

학생회관 화장실에서 사라진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몸

이 학교에는 남/녀라는 생물학적인 성별, 겉보기 성별과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 빨간색 파란색 여자 남자 표식은 누구든 두 개의 성별 중 하나로 들어가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랜스젠더나 인터섹슈얼을 배제하는 화장실, 남자나 여자 한 성끼리 모아놓으면 무성적인 공간인 줄 아는 화장실, 이 두 개의 너무나 많은 몸을 죽인다.

종합관에서 사라진 미화직노동자의 몸

이 학교가 일터인 사람들은 이 학교에서 쉬 수 있어야 한다. 밥을 먹고 잠시간 앉거나 누워있고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 미화직 노동자에게 허락된 이 공간은 여럿이 쓰고 있지만 너무 좁다. 한 건물이나 두 건물에 하나 정도씩 설치된 이 휴게실은 비좁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있는 줄 모르고 문 앞에 책상이나 박스를 놓아두어 문을 폐쇄해버리기도 한다.

청경관에서 사라진 생협노동자의 몸

생협 노동자가 밥 먹는 걸 본적이 있는가? 학교에 매점은 참 많지만 매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휴게실은 거의 없다. 하루 종일 일어서서 일하는 것, 학생들에게 서비스 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무지하게 지치는 일이다. 휴게실이 따로 없는 이슬샘같은 경우 생협노동자들은 카운터에 선 채 김밥 따위로 점심과 저녁을 모두 때우는 일이 허다하다.



* 다이-인 퍼포먼스 후기나 콘서트 후기 중 가학단의 글이 아닌 것은 총여학생회 정치와 다를 수 있음을 미리 밝힙니다.

다이-인^{die-in} 퍼포먼스 후기

후기 하나. 다이인 행사는 우리학교의 공간적 폭력성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였다. 퍼포먼스를 통해서 공간의 폭력성에 대해 유쾌로 대항하고, 학내 곳곳에서 소외되고 불편함을 느끼는 이들의 목소리를 모아 "함께 살자"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 그 속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의 의미를 고민하게 되었고, 몸의 '다름'이 '차별'로 존재하는 '연세대'라는 공간에 대해 문제제기할 수 있었다.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공간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와 나의 그리고 우리들의 고민을 나누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힘과 의지를 얻게 된 행사였다.

by 계란

후기 둘. 다이인즈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한달 전 제가 중도 앞에 누워있는 것을 봤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아니면 '본명'을 다 보는 사람이면 내가 아는 사람이거나 한다리 건너 아는 사람일까?란 생각에 쓰기가 싫어지기도, 매우 우울하던 때에 모처럼의 즐거움을 준 일이었던 걸 생각하면 고마움에라도 후기를 써야 할 것 같았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후기인데, 일단 재미있었습니다. 제가 언제 남들 신경 안 쓰고 학교에서 누워보고 소리를 질러 보겠습니까? 저는 항상 복수의 칼날을 감아 삽니다. 다수라서 소수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소수를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그래서 소수임에도 소수라고 이야기 하지 못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 복수의 칼날을 감고 있습니다. 이게 왜 저에게 복수심을 불태우게 하냐면요 저는 누군가 나누어 놓은 다수/소수의 틀에 갇혀 결국 저를 괴롭히게 된 사람이니깐요. 이 건 분명 안 좋잖아요. 청소노동자의 교육공간만 없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교육공간이 없죠. 칸칸히 나눠진 독서실만 교육공간이 아니라 여럿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곳도 교육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그런 공간이 거의 없죠.

또 계단식 강의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은 합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만 닫힌 공간이 아니라 합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너무 힘든 곳이지요. 저는 책상과 의자가 한 칸에 있어야 하는 계단식 강의실의 계단을 내려갈 때 한발로 걸어야 할지 두발로 걸어야 할지 그래서 기다려져서 앉을지 조마조마하기도 합니다. 백양관의 6층을 걸어 올라가는 힘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어떻게 누구에게나 힘든 것이 왜 자꾸 많은 사람들에게 힘들지 않고 원래 그런 일이라는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거기다 그 일에 저 또한 동참하게 되는지 생각하면 이를 갈게 됩니다. 그래서 종종 여럿이 모여 바닥에 누워서 뛰놀면서 걸보기엔 매우 불편해보일지라도 복수의 칼날을 세우게 되나 봅니다. 자꾸 '갑'을 언급해서 일기에 불편하시다면 죄송합니다. 일종의 은유이니 이해해주세요. 혹시 또 이런 기회가 생기면 같이해봐요~ 진짜 이런 때라도 아닌건 아니라고 해야지 언제까지 아닌게 맞아 라고 하고 싶겠어요~ 그럼 안녕히..

by 조운



콘서트가 끝나고 '오길 잡겠다' 하고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다. 과외 학생이 아프다며 당일에 취소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콘서트를 보지 못했겠지, 실은 학내 행사에 대한 나의 열의는 고작 이 정도였다. 하지만 콘서트가 끝나고 알았다. 과외가 한 주 미뤄져서 배를 풀고 살아도, 나를 이렇게 자극시켜주는 훌륭한 행사에는 꼭 가야하는 거구나! 하고.

첫 공연은 '한남'의 간지 폭발 랩 공연이었다.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이 혼자서 폭풍처럼 간지를 뿜어낼 수 있지? 하면서 정신을 잃고 났는데, 그 랩의 내용이 이랜드 여성 노동자 투쟁 등에 연대하면서 그녀가 직접 작사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웬지 더 대단해 보였다. 자신이 생각하는 정치를 랩으로, 공연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이어진 레드걸의 공연을 보고는 대학로에 가서 비싼 돈 주고 보는 코렐리티의 전위 예술 공연 한 편을 보고 난 기분이었다. 대사 한 마디 없었지만, 그녀가 만들어 내는 몸짓이 평소의 나의 그것과 다르지 않아서인지 내 이야기로 스토리를 채워가면서 감정이입하며 봤던 것 같다.

스윙 시스터즈 세 팀 중에 계속 여운이 남는 공연은 '모녀 스윙' 팀이었다. 머리에 예쁜 꽃을 단 딸이 리딩을 하고, 엄마가 팔뚝잉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스윙댄스란! 여성은 팔로워, 남성은 리더라는 구닥다리 공식을 깨뜨리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아름다운 장면!! 나도 앞으로 세상의 구린 규범들을 가뿐히 비웃어 주는 재밌는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묘한 자신감까지 생겼다. 마지막 산티와 산초의 공연은 드래킹 공연은 유쾌함 그 자체였다. 드래킹은 그 자체 만으로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조롱하는 듯한 느낌을 줘서 좋다. 그런데 거기에 감초같은 패러디까지 가미되어서 더욱 시원히 한바탕 웃을 수 있었던 것 같다.

공연 이후 이어진 사회자와 공연자의 대화들 덕분에, 그저 공연의 자극만을 소비한 것이 아니라 그 공연이 담아낸 내용들까지도 꼭꼭 담아갈 수 있어서 더 좋은 시간이었다. 백양관 강당이 지루한 대형 교양을 들었던 공간이 아닌, 명칭이 규범이 가득한 세상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맘껏 조롱하며 웃으며 힘받았던 공간으로 바뀌게 되어서 참 다행이다. 좋은 콘서트, 감사했습니다.

by SES

여성제 콘서트 “없어진 몸들의 콘서트” 후기



대망의 12회 여성제 <몸이 없어졌다>는 몸에 관한 규범들을 드러내고, 생동하는 몸의 목소리를 담아내려는 야심 찬 기획이었다. 그런 여성제의 저녁프로그램으로 “없어진 몸들의 콘서트”를 기획하고 담당하게 된 것은 너무나도 가슴설레는 일이었다. 몸에 새겨져 있는 젠더규범과 남성-이성애자-비장애인 중심으로 짜여진 몸의 정상성에 도전하는(1) 재미있는 퍼포먼스를 화려하게 만들어가고 싶었다. 그러나 이제부터 할 이야기는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여전히 공고한 현실규범과의 부딪힌 마냥 신나지만은 않은 이야기이다.

콘서트를 할 공간을 빌리는 문제가 바로 그 이야기이다. 워낙 학내에 학생자치활동을 할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나 처음부터 학내에 공연공간을 빌리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이전 학교가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하는 학내 권력관계를 반영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처음에 여성제 기획단은 출연진과 관객이 분리되지 않고, 가까이 소통하며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푸른샘을 먼저 꼽았다. 그러나 푸른샘을 빌리기 위한 여러 가지 문의 과정 중에 생각하지 못했던 큰 문제가 우리의 뒤통수를 후려갈겼다. 그것은 푸른샘이 휠체어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이라는 사실이었다. 우리가 몸에 관한 정상성과 규범에 대해 이야기하는 의의의 문화제를 준비함에도, 처음부터 우리 안에 있던 비장애중심성을 발견할 수 있었던 계기였다. 그래서 기획단들은 학내에 다양한 몸들이 접근 가능한 공연공간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였다.

그러나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학내공간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 위당관 강당은 이미 예약이 되어있었고, 백주년 기념관은 너무 컸으며 그 기간에는 빌릴 수도 없었다. 공학원 강당은 알고 보니 강당입구에 몇 개의 계단이 있었다. 학내를 쏘다니면서 학교의 계단이 예상외로 많게 보이게 되었다. 계단 하나 하나가 엄청 큰 장애물로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다. 머리로만 학교가 비장애인 중심으로 공간구성이 되어있다고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내 몸으로 체감하게 된 것은 여성제 콘서트 장소를 물색하면서 절절히 느낄 수 있었다. 이제 계단이나 폭이 좁은 통로만 보면 땀이 뻘뻘 흘려나오고 한숨부터 쉬게 되는 바깥이 생겼다.

그러던 와중에 백양관 강당이 마침 비게 되어서 백양관 강당을 여성제 콘서트 장소로 빌리게 되었다. 그러나 애초에 우리가 원했던 아담한 공간이 아니었다. 게다가 무대는 엄청 높고, 휠체어 장애인은 객석 맨 앞자리나 뒷자리밖에 접근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공간자체에는 휠체어 장애인이 접근 가능하더라도, 그 공간을 돌아다니거나 무대에 올라갈 수는 없었다. 정말 힘겹게 구했음에도 기획단들은 씁쓸한 기분을 숨길 수 없었다. 겨우 얼마 안 되는 접근 가능한 공간을 잡았나 싶었는데 그 공간도 비장애중심적인 공간임에는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다.

몸의 규범을 말하는 여성제 기획단으로서, 사회와 학교의 몸의 규범들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또한 내 안의 몸에 관한 중심성을 성찰할 수 있었다. 누구도 몸의 규범과 사회논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몸이 없어졌다> 몸에 관한 규범에 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자 했던 우리 기획단의 이야기를 듣거나, 여성제의 행사에 참여했던 분들도, 학내의 몸의 정상성에 질문을 던져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by Y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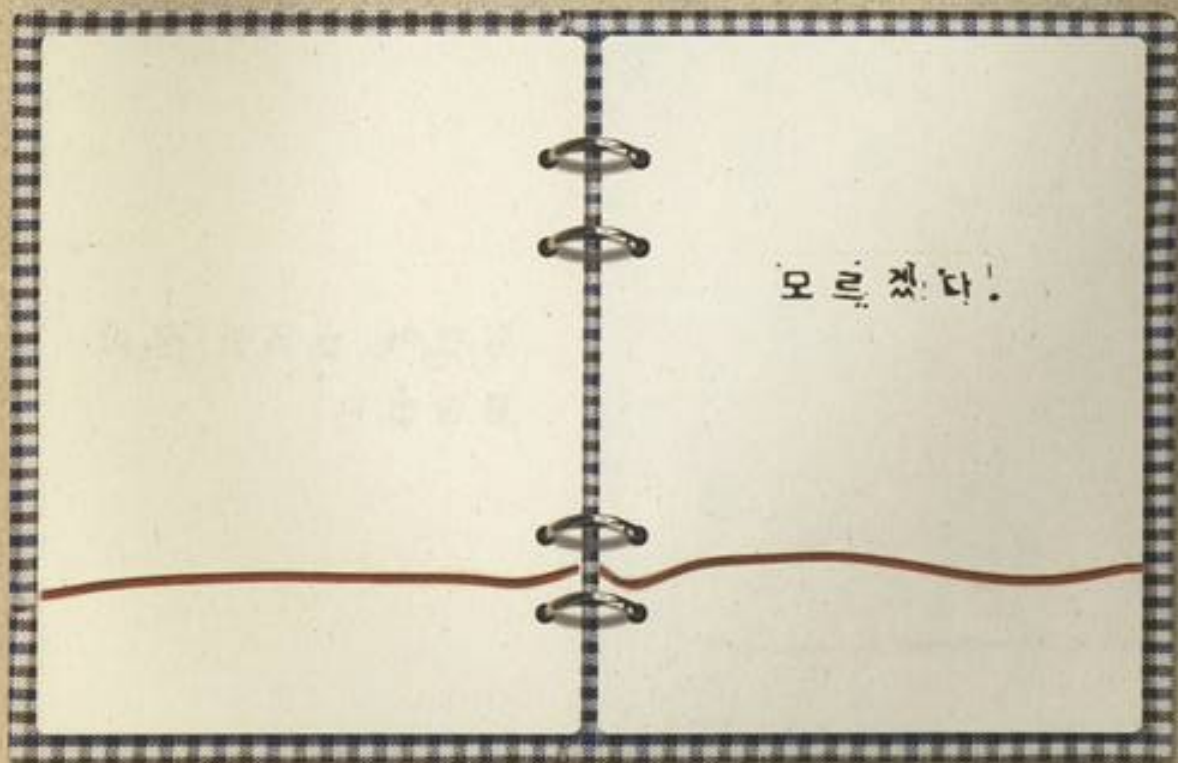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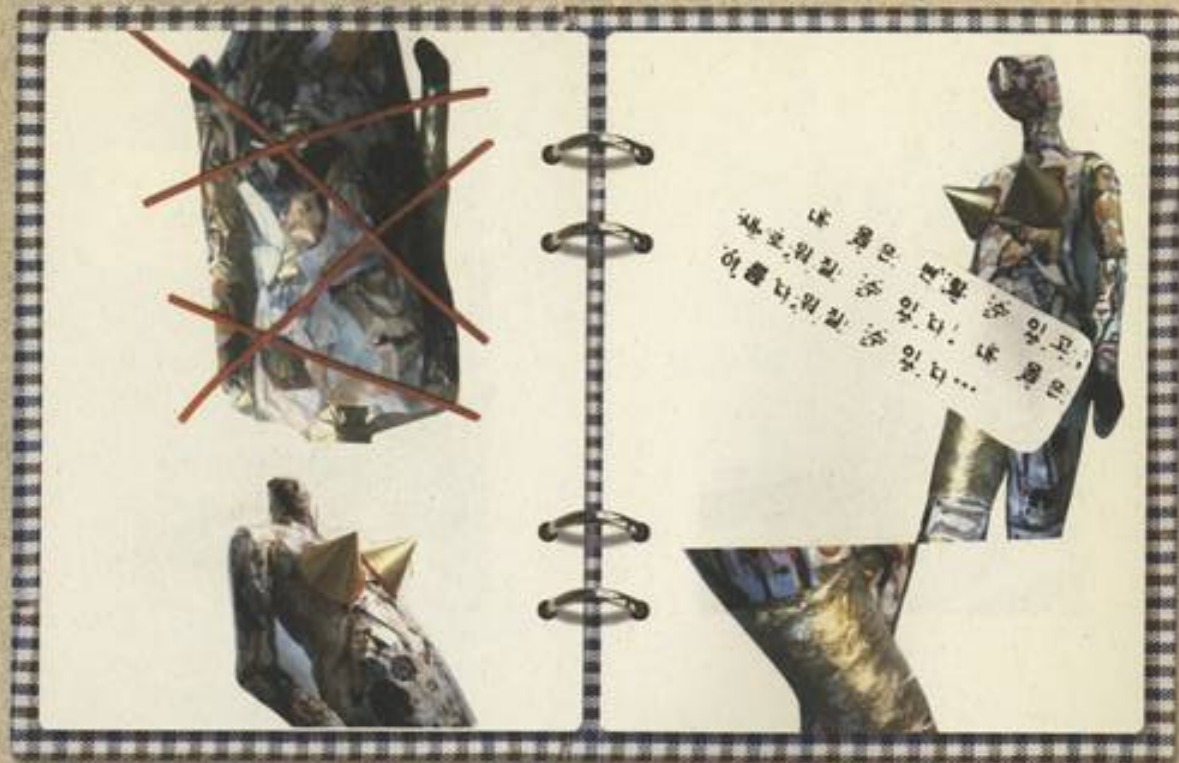
모씨의 앨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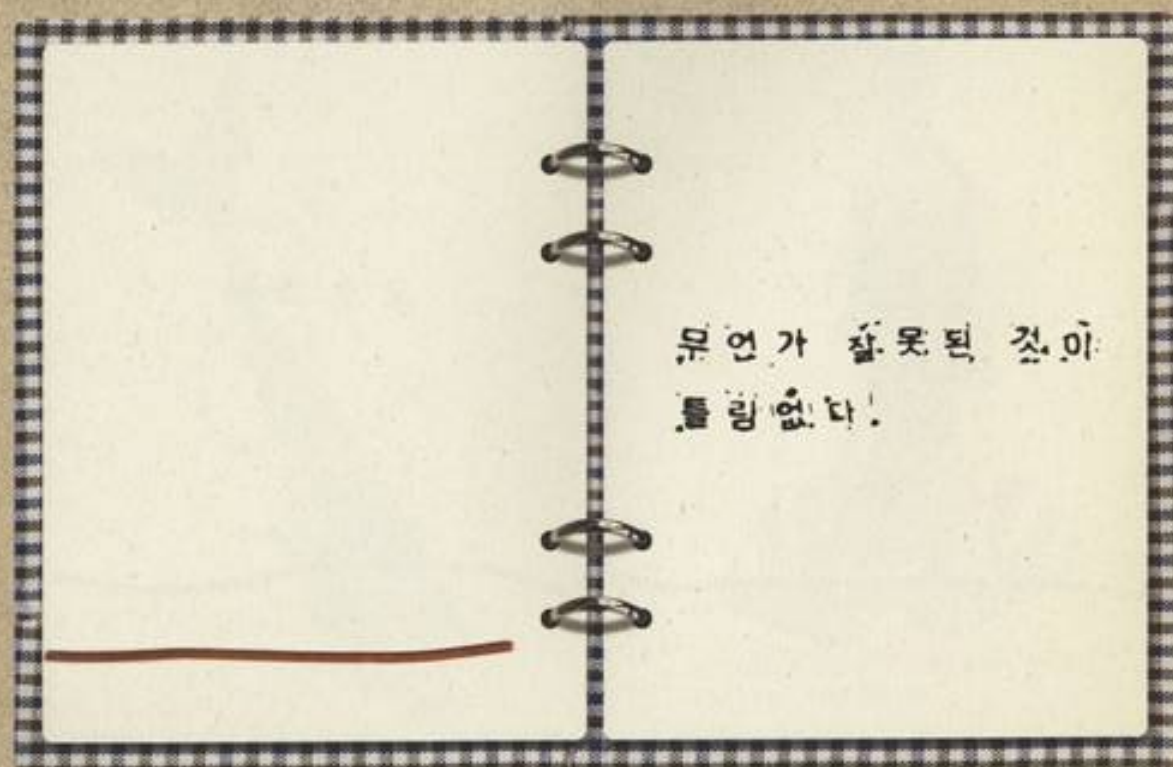
누구도
내 몸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 대신...









여성제, 한달 후, 그리고 ...

1. 아직도 잘 모르겠다 : 몸 너란 놈의 실체는 뭐란 말이나? 라는 질문의 오류의 오류의 오류

태초에 몸이 있었다.

— 라는 언명을 들어본다면 나는 뭐라 말할까. 일단 이 문장에서 형방명명된 정신의 존재에 대해 안부를 물어보지 않을까? 몸/마음 혹은 몸/정신의 오만한 이분법을 씩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의 편의를 위해 이 도식을 이용해 말을 꺼내기도 하거나 그 틀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흘러왔던 것 정도는 긍정하는 터다. 뻔하고 고루한 감이 없잖아 있지만, 예컨대 <열등한> 육체적 고향의 결과는 사람인데 반해 <고결한> 정신적 고향의 산물은 예술작품이며, 그것은 불멸하는 영혼의 자손이라든 플라톤의 사람론에서부터 입사에서 “정신력 싸움”을 외치며 너희 육체의 나약함을 이겨내라고 웅변하는 수많은 선생들까지... 주류 담론에서 육체와 정신의 경계가 확고한 것은 주지의 사실, 나이가 고결한 정신이 육체를 적절히 통제해주는 것은 미덕이다.

이러한 가치관은 참 편하다. 고민할 필요가 없다. 육체를 나에게서 분리해내 통제대상인 변수에 위치시키는 일은 사실상 일상 : 계획/시행/평가 일련의 과정들을 별 혼란=고민없이 착실히, 무사히 수행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불행하게도 그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난 좀 잘 어

그러졌다. 마음은 뭐고 몸은 또 뭐란 말인가, 내 눈에 비치는 당장의 외피가 육체란 개념에 포괄된다고 해서 그게 전부라고는 납득되지 않았다. 몸과 마음이 사실상 경계가 있는 것인지,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주장처럼 우리가 이들을 분리 호명하여 이 ‘둘’로 만들어버린 건 아닌지 고민할수록 수렁이었다. 혼란이었고 지금도 혼란이다. 9월의 총여실, 기획단이 공유한 시간과 공간에는 몸물몸물의 얘기가 넘쳐났지만 사실 내 생에서 몸이란 단어를 사용하기에 여성제 기간만큼 조심했던 적은 없던 듯하다.

정신/육체의 상정은 놓아버리기가 정말 어려운 틀이었고 사실 아직 내 사고 속에서 해체해버리지도 못했다. 무서웠다. 지금, 나는 정신 한 구석에 자아를 내려놓고 내 생각이라고 믿기는 장기 기억 꾸러미들도 내려놓고 앉아 육체의 역사를 타자화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아닐까? 마치 반지의 제왕 속 악신칼리바 시우론이 몸을 잃어버리고 눈 하나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육체/정신의 이분법을 부정하는 와중에도 시각을 정신의 전유물이라 여겨 몸을 ‘관찰’하고 있는 게 아닌지,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자기 기만을 저지를 꺼바 겁이 겁이 겁이 났던 것 같다. 대안? 사실 그건 육체/정신의 이분법을 폐기해버리고 나뉘/나뉘/우리를 설명할 새로운 개념어를 발명해내는 것이 아닐까 싶긴 한데,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범주가 그려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구획이 난 또 불편하게 느껴지거나 세월이 흘러, 별수 없이 이것도 후진 것 같아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 긍정적으로 보면 이 과정에서 해안 이 증식할 수도 있겠지만, 난 아직 잘 모르겠다.

2. 여기, 지금, 우리 함께한 고민의 서사들

옛날 선왕과 실부른 경멸과 피로한 무감동이 내 머리 위에 뚝뚝 떨어졌을 지라도, 철이 든 이래로 단 한순간도 정치적으로 순결순백한 적은 없다. 나를 살피시킬 수 있는 논리가 충분히 있다면, 상대에게 잠시 내 협관을 내주어 자신을 하이브리드화시킬 정도의 유연함은 있었다. 페미니스트로 정체화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내에 여성주의적 목소리 내기에 참여했던 결정의 기반은 그랬다. 8월애야 총여실에 처음으로 들어와 보았고, 여성제는 9월말이었다. 비록 짧은 시간 내에 내가 접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적어도 몸이라는 테마를 두고 벌인 기획단의 시무와 협의는 내게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언어들이었다. 몸이 없어졌다. 왜 우리의 몸은 사라져갈까? 보여지지 않게 될까? 아아, 우리가 규범에 순응하며 탄압하는 몸의 소수성, 피짜기, 잉여들을 애도하고 수면 위로 끌고 올라와 사람들에게 말을 던지자. 색다른 몸의 예언도 모리를 이야기하며 대화를 걸자. 이것이 내가 이해한 이번 페미니즘 문화제였다.

아름 준비하던 시간들은 지금 생각해봐도 녹록치 않았다. 모임 때마다 생소한 용어들이 쏟아져 나왔고, 회의 흐름을 놓치기 일쑤였다. 위 기감을 느낀 나는 일단 말 꺼내기를 시작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

냥 허세를 버리기로 했다. 내가 쓸 수 있는 언어도 끌어낼 수 있는 경험도 그리 풍성하지 않았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은 내 말에 잘 귀 기울여 주었다. 약간 용기가 났고, 이어 아이디어도 몇 가지 내볼 수 있었다. 시간은 오래 걸릴지라도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노력하는 기획단 운영방식이 마음에 들었다. 그것이 내가 이번에 실질적으로 체험한 여성주의적 의사결정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내게 누군가의 공동 작업은 뒷분들이 시키거나 억지로 하는 것에 불과했지만, 기획단에서의 경험은 팀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 이론적으로 긍정적인 인상을 주었다. 특히 내가 겪은 대부분의 공동체와는 달리, 세칭 리더가 강한 주도권으로 구성원들을 ‘통솔’ 및 ‘지휘’ ‘감시’ 하지 않고 비교적 평등한 분위기에서 서로의 의견이 고르게 존중되어서 나같은 소심쟁이는 기뻐다. 막연하기만 했던 여성제에 대한 전체적 그림이 회의, 회의, 그리고 회의의 가치를 그려졌고 논의는 구체화되어 현실에 매일매일 가까워졌다.

함께 모여 공리한 시간들이 글로서 고스란히 자료집에 녹았다. 자료집에 실린 글들은 ‘함께 글쓰기’의 형식으로 만들어져갔다. 이는 구체적으로 다함께 모여 각자의 글을 함께 읽어보고, 글이 막히는 지점을 물어나가고, 잘 의의가 읽히지 않는 표현을 가독성 있게 고쳐서 서로의 글쓰기를 격려하는 과정이었다. 이런 방식으로 나온 글들은 누군가의 이름표를 하나하나씩 달고 있지만, 서로의 지식과 경험과 고민을 공유하면서 피드백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에서 공동자작물이기도 하다. 물이 커보면, 함께 글쓰는 과정에 처음 참여한 나로서 내 글을 사람들이 돌려 읽고 검토할 때 미안함이 밀렸던 것을 기억한다. 내 자신을 이리저리 해집어 끌어온 글이라 그런지, 사람들의 말 한 마디 한 마디에 신경이 다 달아없어지는 기분이 들 정도로 예민했다.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내 책임 하의 글 두 개를 마감했다. 자료집이 나왔을 때 글 하나하나가 눈에 익어 있어 새삼 신기했다. 그리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았다. 각자 다르지만 하나 안에 있는 언어로 말을 걸고 있었다.

서로의 글을 읽고 관여하면서 기획단원 한명 한명에게 어느 정도의 이해가 마련되었다고 느꼈다. 몸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나의 어떤 부분을 부정하고 질라내려 하는지, 그에 발생한 갈등은 무엇인지 사람마다

싸움의 지점과 양상이 조금씩 달랐다. 기실 엄연히 다른 개체들이었다. 그러나 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을 수 없었고, 저 사람이 저번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나 조금이나마 알 수 있어 신뢰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이방인이자 초행자였던 나는 낯선 사람들과 소박하지만 진정성 어린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었다. 여성제 준비 기간, 어떤 날들은 강행군에 정말이지 녹초가 되어 기진맥진 집에 기어들어갔지만, 다음날이면 때로 연락이 두절되는 것 같아보여도 ㅠㅠ 늦게라도 몸을 일으켜 사람들을 만나러 갔다. 여성제 두 번째 날 아침, 전시가 홀랑 바람에 날아간 현장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조심스레 살펴본 것을 기억한다. 허탈, 절망, 분노... 몇날 며칠 심어명의 사람들이 쏟아부었던 노고와 열정을 생각하면 모든 게 허무해서서 헛웃음 밖에 나오지 않았던 상황. 그러나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오후개가 되자 지친 심신을 추스르고 다음날 아침까지 교대로 일을 하며 축소된 공간에서나마 다시 전시들을 복구해냈다. 관계의 지형은 늘 유동적이지만, 여성제 기간 서로를 고마워했던 신뢰망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사람들과 모여 무엇을 작업하고 밤새 작업하는 건, 솔직히 말하면 대학생생활에 대한 나의 로망 중 하나이기도 했고 언젠가 꼭 아로새기고 싶은 기억이었다. 더욱이 여성제 기획은 상투적이지 않아 좋았고 가볍지 않아 좋았다. 실과 유리되지 않은 목소리라 좋았다. 이번 문화제 기획단을 하면서 “화살이 달지 않은 곳에 앉은 녀석은, 결국 화살을 맞힐 수도 없다.”라는 말에 강하게 공감하게 되었다. 공격도 비판도 받을 수 있지만, 그걸 각오하고 나서야 더욱의 생각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학내 공간에 일상을 흔드는 목소리를 내는 경험을 함께 했다는 것이 내겐 그 자체로 큰 배움이었다. 사실 좀 더 소박하게,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기획단의 ‘몸이 없어졌다’라는 메시지를 들어다보고 잠시나마 성찰 및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걸로 좋았다고 생각한다. 웃을 수 있었다. 너무 개인적인 차원으로 기획한 경험을 원시시키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지만, 내게는 여러 사람들과의 치열한 고민을 통해 시각을 조금씩 넓히고 열어갔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by 水



P.S. 내 언어 중 가장 솔직한 것은 “모르겠다”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가장 무책임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저 바닥에 주저앉아 밑에서부터 끌어 올라갈 각오를 부담없이 심어주기도 하는 자유로움. 그게 내 무지다. 여성제 기획에 참여하는 일도 무지에서 동기화된 시작을 하나였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생각할수록 모르겠다. 잡히는가 하면 잡히지 않는다. 서로의 고민 서로의 좌절 서로의 망망대해들은 내 심부름 구조화에 관할 정도로 만만하지 않았다. 여성제를 마치고 어떤 한달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모르는 점이 많은데, 그래도 많이 트였고 달라졌고 해서 결국엔 뭔가 배워도 배웠다고 생각이 든다. 모르겠다를 끊임없이 어떤 부분은 아직 내게 언어화되어 다가오지 않았을 뿐일 수도 있고, 어떤 지점의 의문은 계속해서 안 풀릴 수도 있다. 확실한 것은 말할 수 있는 영역이 늘었다는 점 뿐이다. 여성제는 끝났지만, 나는 문제의식이 배어있었던 시각을 놓아버리지 않은 채로 일상을 조금 더 하고 그 때 그 사람들과 새로 보게 되고 발견한 지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다. 여성제 한달 후, 여기가 때론 추위가 예상되는 겨울을 맞이하며 내가 서 있는 곳이다.

켈렐럼 _ 10월 초에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11월에 글을 마쳤다.
10월 한 달간 나는 방구석에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웅크려있었다.
10월은 무기력한 달이다. 십월이 아니라 시월이라 읽는, 받침조차 읽기 귀찮은 그런 달.
하지만 불조심의 달이 왔고 나는 활활 타오르며 글을 써냈다.
11월이다. 한해가 저물어간다.

무늬 _ 한 달간의 분노는 도도한 글을 낳는다.....?
여성제는 레알이었어.

Tara _ 모든 순간이 다아 꽃봉오리인 것을

YM _ 어느새 가을이군요 ^^
정신없는 이 후기는 답에 보면 또 부끄러울 테지요!

만두 _ 오 맵소사

나무 _ 욕심이 남아서 살짝 무리한 기획을 시작했는데
마감할 때가 되니 욕심이 더 커져버린 것을 발견!!
과연 남은 임기동안 어디까지 볼태울 것인가!!!

